



군산장례(전문)예식장



거품없는 장례비용으로 예(禮)와
정성(情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T. 468-4119, 4444



예식실



사우나실



2층로비

동군산 장례식장



‘가장 가깝고, 가장 편리한 곳에서
마지막 친절을 보내주세요’

T. 441-4444



상상
그 이상을 향해!

SHIDAO International Ferry

**P.S NEW SHIDAO PEARL / P.S GUNSAN PEARL
DAILY SERVICE**



석도국제훼리(주) www.shidaoferry.com

군산 **tel.** 063-441-1200 **fax.** 063-441-1220

석도 **tel.** +86-631-728-6666 **fax.** +86-631-728-9399

서울 **tel.** 02-725-7811 **fax.** 02-725-1671

하역/운송사(주)제범 **tel.** 063-461-1803 **fax.** 063-461-18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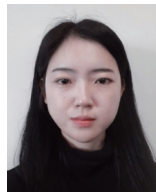
박승일
회장
newgunsanews@naver.com



채명룡
발행인
ml7614@naver.com



강권모
부사장
sky6113483@hanmail.net



김혜진
편집부장
dhik0324@hanmail.net



최승호
취재부장
gsport11@naver.com



강해인 편집위원
godls468@naver.com



박세원 편집위원
작가
hamp38@hanmail.net



배수정 편집위원
서양화 작가
국립군산대 서양화 강의
jlmjlm710@naver.com



신성호 편집위원
지필문학/대한문학
편집발행인
한국예총 군산지회
부회장
shinez2580@hanmail.net



신재순 편집위원
시인(전북작가회의)
한국동시문학회 회원
speedal@hanmail.net



오성렬 편집위원
칼럼니스트
poi3275@naver.com



이소암 편집위원
시인(전북작가회의)
군산대학교 평생교육원
문예창작 전담교수
lsa6246@hanmail.net



이영미 편집위원
프리모아트컬렉션
(사)이음예술문화원
대표
ycm1022@hanmail.net



이준호 편집위원
작가
sting4246@hanmail.net



조경신 편집위원
군산시가족센터장
호원대학교 아동복지
학과 외래교수
vip2300@daum.net



한대산 편집위원
jbekt@naver.com



공종구 편집위원
국립군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kong@kunsan.ac.kr



한상오 편집위원
새만금환경생존연합 대표
hansango24@gmail.com



Vol.168 | 2025.04

회장	박승일	newgunsanews@naver.com
발행인	채명룡	ml7614@naver.com
부사장	강권모	sky6113483@hanmail.net
편집부장	김혜진	dhik0324@hanmail.net
취재부장	최승호	gsport11@naver.com
편집위원	강해인	godls468@naver.com
편집위원	박세원	hamp38@hanmail.net
편집위원	신성호	shinez2580@hanmail.net
편집위원	오성렬	poi3275@naver.com
편집위원	이소암	lsa6246@hanmail.net
편집위원	이영미	ycm1022@hanmail.net
편집위원	조경신	vip2300@daum.net
편집위원	최영두	cydnovl@naver.com
편집위원	한상오	hansango24@gmail.com
편집위원	한대산	jbekt@naver.com
칼럼니스트	배수정	jlmjlm710@naver.com
칼럼니스트	신재순	speedal@hanmail.net
칼럼니스트	공종구	kong@kunsan.ac.kr
칼럼니스트	김철호	www.crabland.com
자문위원	이진우	jay0810@hanmail.net

동문일인 생기는 대학 굿잡! 군장대학교

WURI 세계혁신대학 5년 연속 선정

산업적용가능성(Industrial Application) 부문

(평가 2020 45위, 2021년 27위, 2022년 32위, 2023년 31위, 2024년 30위 선정)

고등직업교육 융합인성대학 | 교육부 고등직업교육거점 지구(HIVE 1유형) 사업 선정
 교육부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1,2유형) 선정대학 | 교육부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LIFE2.0) 운영대학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 | 고용노동부 고숙련 일학습병행(P-TECH) 운영대학
 교육부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 운영대학 | 교육부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 운영대학



사회적 도전과 정경의 대학

군장대학교

경장동 사거리, 안전할까요(?)

지방 도시에도 고층 바람이 불고 있다.

은파 인근의레이크시티 아이파크는지하 4층에 지상 26층~29층이다.

구암동의 더샵프리미엘과 인근 지역 e편한세상 군산 디오션루체, 조촌동 경남아너스빌디오션 모두 29층이다. 내홍동 신역세권의 영무 예다음과 한라비빌디센트로는 25층이었다.

가장 최근 분양에 들어간 경장동의 '중해 마루할' 임대아파트는 46층이며, 근처에 2개동 275세대를 짓는 효성헤링턴플레이스의 경우 지하 4층에 39층이다.

이 외에도 분양 계획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고층 일색이다.

혁신적인 공법과 건축 기술의 발달로 고층 주거 단지는 일반화되어가는 추세이다.

용적률을 감안할 때 경제성 면에서 우월할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

고층 아파트의 경우 다중 이용 시설이기 때문에 안전 문제를 더욱 확실히 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최근 인·허가와 단속권한을 가진 군산시의 행보는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다.

아무리 민간 사업이라 할지라도 다중 이용 건물이라면 기초부터 문제점이 없도록 지도 감독해야 하지 않을까.

책임 감리를 두었다는 이유로 먼 산 보듯하다가 서울의 싱크홀 사건처럼 만일의 사태가 일어난다면 그 피해는 누가 보며,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효성헤링턴 플레이스 공사장 지하 터파기 공사가 약 10개월 이상 멈춰섰다. 이 때문인지 지하 수위 변화와 히빙 현상 등으로 주변의 공공 도로 지반이 가라 앉는 현상이 발생했다.

군산시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 이 기간 동안에 히빙 현상을 막기 위하여 건물 차수벽과 도로의 간극을 메우기 위하여 그라우팅 시공을 했다.

중단되었던 공사는 최근 다시 재개되었다.

그렇다면 시민들의 왕래가 빈번한 경장동 사거리는 안전하다는 말인가.

지하 4층 깊이로 파놓은 현장에서 장기간 물을 퍼내고, 무너지고 올라오는 질퍽한 뽕을 파낸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 일대의 지반이 유실되어 싱크홀이 되거나 가라 앉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해 줄 것인가.

지금이라도 군산시와 시공사는 공사를 중단하고 이 일대에 대한 정밀 지반 조사에 들어가길 바란다.

그게 바로 안전 사고를 막는 길이다.



글 강권모
본지 부사장

newgunsanews@naver.com



내 마지막 반려자는 ‘군산’

40년만에 고향으로 돌아 온
이주현(조국혁신당 군산지역위원장)의 실패와 성공 이야기

글 | 채명룡
ml7614@naver.com

“공부를 못할 바에는 차라리 돈이나 벌러 갈까.”

1982년 2월의 군산고(통합 55회) 졸업식장. 새 출발은 누구에게나 아름다운 도전이다.

그러나 졸업이 따뜻한 봄날만을 기약하는 건 아니었다.

힘겹게 일을 나가는 어머니를 보면서 집안을 일으켜 세워야한다는 절박감에 애늬은이가 되어버린 청년 이주현.

차가운 바람이 기웃거리는 겨울의 끄트머리에 서서 그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열아홉 청년이었던 그는 졸업식 날 밤 서울행 야간열차에 몸을 실었다.

“교복을 벗자마자 얻은 돈을 벌어 어머니를 도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공부는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마음 먹었고요.”

그가 고향 군산을 떠나 외롭고 힘들었던 40년 동안의 외출을 하게 된 출발점이 바로 군산고 졸업식 날이었다.

영등포역에서의 하룻밤....그리고 촌놈의 방황.

그리고 도전과 실패를 거치면서 꿈을 꾸었고, 오늘날 고졸 공직자로서의 작은 성공 신화가 만들어졌다.





어머니 어머니, 나의 어머니

이주현의 집안은 나포면 숯골이었다. 그가 어릴 때 시내로 나와 창성동에서 흥남동으로 말랭이를 찾아 이사를 거듭했다. 집이 멀어졌어도 그 아이는 전학보다 먼 길을 걸어서 걸어서 학교에 갔다. 중앙초(67회) 졸업장은 그의 두 발이 만든 소중한 추억이다.

“어머니는 늘 힘겹게 일했어요. 2남1녀를 키우느라 집안을 돌볼 겨를도 없었지요. 서울로 돈 벌러 가기로 한 날, 동생들을 전주의 외가로 유학 아닌 유학을 보내고 돌아오신 어머니는 밤새 잠을 못 이루셨지요.”

이 때부터 이주현의 가슴에는 만이로씨의 책임감이 굳게 새겨졌다.

공장 생활을 전전하며 틈틈이 공부했다.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끊임없이 도전하여 여러 곳의 시험에 합격하였다. 어머니는 그런 그를 늘 응원해 주셨다.

무상한 세월이 흘러갔다.

지난 2024년 여름 어머니가 세상을 떠면서 그의 사모곡은 멈춰졌다.

어머니를 떠올리면 눈가부터 촉촉해지는 이주현. 그는 ‘천생 효자’였다.

‘고졸 7급’, 꿈을 이루어 낸 이주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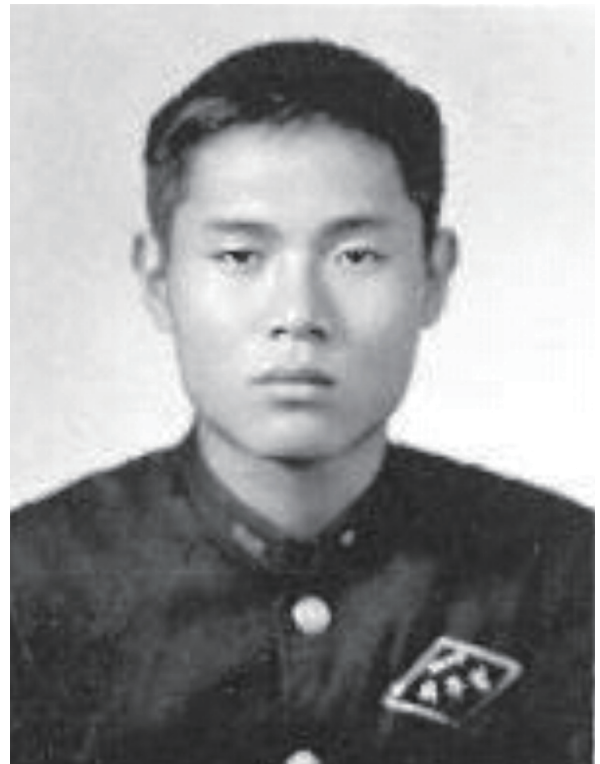
밤차로 도착한 새벽, 영등포의 바람은 차가웠다. 어디로 갈지, 어떻게 시작할지 암담했다.

물어 물어 찾아가던 곳이 구로동의 사출공장이었다. 숙식 제공 12

시간 맞교대에 월급은 10만원 남짓이었다.

힘들었지만 성공하기 전까지 고향에 내려가지 않겠노라 독하게 마음 먹었다.

“문득 문득 ‘이게 내가 가야 할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살길은 무엇일까 고민했죠.”





전국민 의료보험이 시작될 때 송파지역의료보험 노조 부위원장으로서 활동했다. 애뜻한 마음을 품었던 여성도 여기에서 만났다. 그러나 인연이 아니었다.

‘나를 던져 주변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신념처럼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벌어졌다. 부위원장이었기에 옷을 벗어야만 했다.

총무로서 잠깐 인쇄업을 하다 포기하고 공직에 도전하기로 작심했다.

“처음에 세무직 9급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터덜터덜 노랑진 고시학원에 찾아갔는데, 7급 시험 안내문이 눈에 띄더라고요. 9과목에 처음 접하는 법과목들 ‘바위에 돌 던지기’라는 소리를 들어요.”

그날부터 1년 동안 죽을 힘을 다했다. 시험 과목을 수십번씩 읽고 또 읽었다.

9급 낙방에 실망하지 않고, 7급에 도전하는 그의 돈키호테같은 용기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

결국 그는 93년도 총무처 시행 국가직 7급 시험에 보기 좋게 합격하는 영광을 안았다.

총무처 발령 대기 기간 중에 서울시 세무직 9급 시험에 합격해서 관악구청에서 1년 반을 근무했다.

7급 합격증을 받아든지 2년이 지난 1995년 8월 3일, 기다리던 조달청 발령을 받았다.

9급 공무원 낙방 - 7급 공무원 합격 - 다시 9급 공무원 합격 - 7급 공무원 ‘발령’이라는 고졸 성공 신화는 이렇게 쓰여졌다.

업무 스트레스를 달리기로 풀자 인생이 바뀌었다.

98년도에 조달청이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전했다. 국가직 7급 공무원 중에서 이주현 처럼 고졸 학력은 사막에서 바늘 찾기 정도로 극 소수였다.

공식적인 차별은 없었으나 4년제 대졸자들이 대부분인 7급 공직 사회에서 고졸이 받는 압박은 상상 이상이었다.

심장이 터질듯한 스트레스를 풀길이 없어 그는 무작정 달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100미터도 못 뛰었으나 뛰고 또 뛰다 보니 5킬로, 10킬로를 넘어 하프코스에 도전하게 되었다.

드디어 2006년 중앙일보 마라톤 대회에서 42.195킬로를 완주했다. 이후 군산~전주 마라톤 대회에도 여러 차례 참가했다.

누구를 탓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서 문제를 풀려고 했으며, 스스로를 단련하여 왔던 그의 굳은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마라톤 도전기이다.

이런 그의 노력을 하늘이 알아주었다. 어렵게 어렵게 사무관에 승진했다.

“고졸 출신이라서 그랬는지 근무 평정도 좋게 받지 못했고, 승진에서 번번이 탈락했죠. 2010년에 논술 시험 1등으로 발탁되어서 가까스로 사무관으로 승진했어요.”

이 때 전북청에 과장으로 2년여 근무하다 다시 본청으로 복귀했다.

2020년초에 조달청장 비서관으로 일하던 시기에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졌다. 전 국민 ‘마스크 대란’이 일어난 시기였다.



“당시 식약청의 업무를 조달청이 이관 받았거든요. 청장 비서관으로 일할 때였는데, 전국의 지방청을 돌면서 숨어 있는 마스크를 납품하도록 독려했고, 결과적으로 전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원할히 공급해냈지요.”

코로나 조기 종식의 숨은 공로가 있어서인지 그 해 7월에 전북 지방조달청장으로 영전했다.

전북청장으로 약 2년 6개월을 일하면서 전북지방청 최초로 연간 2조원 계약 시대를 열었다.

그리고 다시 또 다른 도전을 위하여 2022년 겨울 명퇴하고 고향 군산에 돌아왔다.

암행어사 활약, 부패와 비리 ‘꼼짝마’

지난 2013년부터 2년 동안 국무총리실의 공직복무관리관실로 파견 나가 전국을 돌며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암행어사 역할을 했다.

“감찰을 통해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죠. 누군가 피해를 보는 공직자도 나오기 마련이었고요. 부정, 부패의 줄을 끊는 건 정말로 어려운 일이거든요.”

오늘 날 군산지역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과 언론에서 지적하는 부패와 비리 등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암행어



사 역할을 했던 때를 떠올리곤 한다.

이후 조달청 본청 감사실에서 5년을 근무했고, 당시 청렴도와 부패 방지 시책을 주도하여 조달청 청렴도를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려 놓은 주역이 바로 이주현이다.

“오늘의 군산시가 당면한 골짜기 수준의 ‘청렴도’ 문제는 극약 처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공직자들 스스로가 평가하는 내부 청렴도가 최하 수준이라는 결과를 볼 때 군산시는 이미 중병 수준을 넘어서었다는 생각이구요.”

무언가 바꾸어야 할 때임은 분명하다. 이런 때 암행어사를 역임한 그가 무엇인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군산고 졸업생 대학 입학등록금 전달



준비하는 자에게 미래가 온다

국무총리실 파견 생활을 할 때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 대부분은 일류대를 나온 행정고시 출신들이었다.

“생각해보면, 고졸 출신 공직자는 설 자리가 없었다고 봐요. 학력 제한이나 차별이 없는 공직 세상이라고 했으나 한계를 느낄 수 밖에 없었죠.”

그래서 고향 군산에 가서 봉사를 하려면 공부도 더하고 스스로를 단련해야 했다.

예전 직장에서 방통대에 입학해서 50학점 정도를 따놓았는데, 다시 복학하니 그 걸 모두 인정해 주었다. “전북청에 근무할 때가 코로나 시기였어요. 말하자면 저녁이 없는 삶이었는데, 공부하려는 사람에겐 유익한 시간이었던 셈이죠.”

계절 학기 등 2년 6개월만에 나머지 학점을 모두 이수했다. 그리고 연세대 행정대학원에 입학했다.

간간이 들려오는 내 고향 군산 소식은 너무 슬펐다.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하며, 바꾸어야 병이 치료된다고 생각했다.

“고향 군산을 고치기 위해서는 공직기강 경험을 가진 내가 조금은 유익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어렵고 힘든 고향을 변화시키는 일이 어쩌면 그의 마지막 소명으로 남지 않을까.



독신이니 아내 리스크는 없겠죠(?)

삼십대 중반까지 시험과 직장의 생존 경쟁을 치르다보니 그의 결혼 적령기가 훌쩍 지나가 버렸다.

“결혼을 하지 않은 게 큰 흠은 아니지만 구설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내조(안사람) 정치가 원천 봉쇄되어 있으니, ‘깨끗한 정치’의 기반은 이미 닦여진 게 아닐까요?” 열심히 살다보니 혼기를 놓쳤고, 서로에 맞는 상대를 찾지 못해서 아내를 두지 못했으니 손가락질 받을 일은 아니다. 더구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꿈을 잃지 않았고, 스스로를 갈고 닦으면서 깨끗한 삶을 살아온 그의 캐릭터를 두고 이 사회가 냉담하기만 하랴.

그는 로또 아파트가 당첨되는 행운도 건졌다. 2010년도에 LH 보금자리 아파트에 당첨되었다. 10년 임대 후 분양 조건이었다. “임대로 8년을 살고 분양을 받으니까 아파트 값이 훌쩍 뛰었다고요. 가진 것 없이 살아 온 공직자에겐 로또에 당첨된 셈이죠.”

고졸 공무원이 세찬 비바람을 헤치고 40여년 만에 고향 군산에 돌아왔으나 기다리는 건 안타까움 뿐이었다. 인구는 떠나 가는 데 이렇다 할 비전도 없는 게 바로 내 고향 군산의 모습이다. “저는 마누라와 자식도 없으니 돈 벌려고 아등바등 할 일이 없습니다. 작은 집도 있고 연금도 나오니 검은 돈과 유착될 일도 없지요.”

가난했지만 따뜻했고, 짬내가 머물렀으나 정겹고 힘찬 도시였던 군산을 위해 그는 어떤 길을 갈까.





할 일을 다하면, 모든 재산을 ‘내 고향 군산’을 위해 헌납

청년 시절 돈 벌기 위해 서울행 밤차에 올라탔던 이주현. 그가 40여년 만에 고향 군산에 돌아왔다.

그리고 ‘총각’ 딱지를 떼지 못한 그는 마지막 반려자를 ‘내 고향 군산’이라고 생각했다.

‘꿈을 꾸자 오늘이 만들어졌다.’는 이주현 전 전북조달청장, 그는 거대한 벽일지라도 부딪쳤고, 안주하지 않았다. 또 상상하고 꿈을 꾸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갔다.

“군산도 꿈을 꾸면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이루어 질겁니다. 지금은 아프고 힘들지만 좋은 상상을 하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늘상 꿈을 꾸지만 그는 다른 욕심은 없다. 이주현의 ‘진심’을 믿어주면 그나마 희망이 좀더 생기지 않을까.

“제가 구상하는 모든 일이 마무리되면 미련없이 전 재산을 군산의 장학기금으로 내놓을 생각입니다.”

빈 손으로 돌아가는 삶을 제가 실천할 거라는 그의 목소리가 유난히 깊고 멀리 울려퍼졌다.

이주현

조국혁신당 군산지역위원장

군산경제연구소장(전 전북지방조달청장)

010-8726-5202



힘든 군산, 공동체적 선비 정신으로 극복해야

황진 더민주혁신회의 전북 공동대표

글 | 채명룡
ml7614@naver.com

스스로는 운동권, 기독교인이라고 했다. 하지만 과묵하고 신중한 그의 모습은 심지 곧은 선비에 다름 아니었다.

글 읽는 선비 노릇 하기가 어렵다고 한탄하시며 끌려간 대마도에서 스스로 절명하신 조선말 유학자 이자 의병장 최익현 선생을 존경한다고 했다.

지난 2019년 12월 건강상의 문제라는 소문만 남기고 정계에서 물러선지 6년.

누구의 말이든 다 들어주는 ‘형님 리더십’으로 시민들에게 다가섰던 황진씨가 다시 돌아 올 수 있을까. 봄 바람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지난 2020년 4월 15일의 총선 당시,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에 대항하여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과 황진 시민운동가가 민주당 공천장을 두고 치열하게 맞붙었다.

그러나 하늘은 그를 비껴갔다.

언론에 알려지기로 “수 년 전의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쉬면서 치료를 받았는데, 경선을 하면서 과로 등으로 건강이 나빠져 모든 것을 내려놓고자 한다.”였다.

치과 의사로 일하면서 생김 능력의 일부로라도 어렵고 힘든 이들과 함께하려는 측은지심(惻隱之心)을 가진 행동가이자 종교인이 바로 황진 원장이다.

요즈음 그는 더불어민주당 내 친이재명 원외조직 더민주혁신회의의 전북 공동대표를 맡아 조심 조심 세상 속으로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



공중보건의

시골 분교(?) 출신, 치과 의사가 되다

아버지가 일직 세상을 뜨자 돌아간 고향 함열읍 다송리 391번지에서 할아버지 손에서 자란 황진은 할아버지가 터를 기부하여 유치한 시골의 작은 학교 출신이다. 동네 친구들이 6학년까지 계속 한 반 이었다. 함열에서 중학교를 다녔고 남성고에 입학하면서 세상을 하나씩 알아갔다.

“배운다는 의미와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경험한 제 인생의 가장 의미있는 시기였죠.”

교내 유도관에서 운동도 하고, 명사 강연도 들었다. 생각의 깊이와 폭을 정연하게 넓히는 신문 사설의 중요성도 이 때 배웠다.

“오늘날의 교육 현장과는 많이 다른 분위기였는데, 멋지고 탁월한 친구들과 함께 배우고 교제할 수 있는 제 인생의 가장 귀중한 때였죠.”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어린 황진에서 청년 황진으로 탈바꿈하는데에는 남성고에서의 학습과 다양한 경험이 큰 바탕이 되었다.

“내심 문과쪽을 선호했는데, 치과대학이라는 게 전문 직업학교와 비슷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담임 선생님께서 특별히 권하셔서 이과쪽이라서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죠. 요즘 가끔씩 당시 스승님의 조언이 없었다면 무엇이 되었을까 생각하죠.”

고3 청소년기의 황진은 담임 선생님께서 원광대 치의학과 진학을 권유하자 그대로 따랐다.



신학대 졸업식



첫 월급 27만원 공중보건의, 이후 중앙로에 개원

대구의 군의학교와 영천의 삼사관학교에서 군사 훈련을 받은 치과 의사 황진은 군산의 성산보건지소에서 첫 근무를 시작으로 대야의 옥구군 보건소 등 모두 3년을 보건소에서 근무했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 어머니께 용돈을 받아 쓰는게 너무 죄송했던 청년 황진은 스스로 돈을 번다는 게 정말 기뻐했다. “첫 월급이 27만원으로 중위 월급이었어요. 제가 얻은 최초의 월급이었기에 외할머니의 교회에 헌금했죠.” 환자가 정말 많았다. 장날인 1일과 6일의 경우 시장 거리처럼 붐볐다. 바쁘고 피곤했지만 환자와 정겹게 교류한 소중한 시간이었다. 6월 항쟁으로 거리마다 뜨거웠다. 군산시청이 이전할 즈음 군산의 가장 변화가였던 옛 시청 부근에 중앙치과를 개원했다. 1989년 5월 1일의 일이다. 이 날부터 치과 의사 황진은 누구도 이익을 달지 않는 ‘군산 사람’이 되었다. “보건소에서 근무할 때에는 치료비가 싸서 그랬는지 환자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런데 개원하자 하루 열분도 안될 정도로 환자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운동권’ 요? 걱정마세요, 불쾌하지 않습니다.

군산에서 중앙 치과를 개원하던 시기는 전국이 민주화 운동 열

기로 뜨거웠다. 전국적으로 여러 전문직 사회운동 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창립되었다.

그 즈음, 치과 의사 사회운동단체로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전북지부’ 회장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 운동을 주도했던 이들은 대부분 공보의였는데, ‘회장은 개업의가 맡아야 할 게 아니겠느냐’는 거였다.

“개업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어울리지 않는 자리라고 생각했어요. 또한 대학에서 학생 운동은 했으나 유급이나 제적을 무릅쓸 자신이 없어 거리를 두고 지냈던 자격지심도 있었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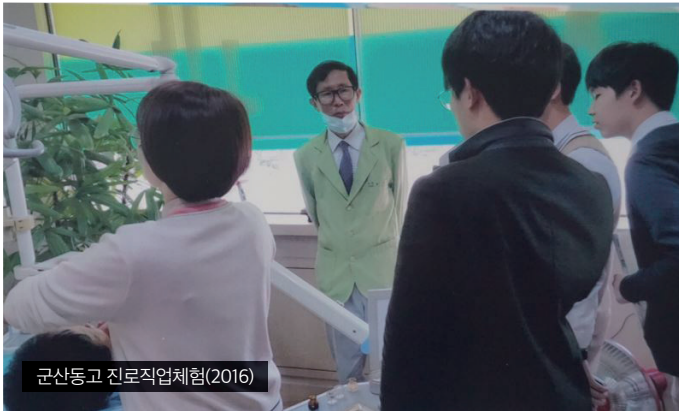
당시 학생 운동을 주도했던 동료들은 정학, 유급은 물론 수감까지 당하는 고초를 겪기도 했다.

운동권이면서도 전력을 다하지 못했던 ‘부끄러움’ 비슷한 마음의 빛을 갚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초대 전북지부장을 3년을 했다.

당시에 ‘군산·옥구 민주화운동협의회’, ‘민주주의 민족통일 군산·옥구연합’ 등의 단체에서 민주화에 헌신하시던 여러분들을 만났다.

“저는 가끔 운동권이란 소리를 듣습니다. 운동권의 이력이 별로 없기에 저 스스로 운동권이라 생각한 적은 없으나 저를 ‘운동권’이라고 부르는 데 대해 불쾌하거나 불명예스럽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도리어 과분한 영광이라고까지 생각해요”

치과 의사로서, 사회복지에 관심자로서, 기독교청년회 회원으로써 살아 온 황진 원장의 철학은 ‘우리 사회 공동체가 모두 함께 잘 살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가 사회운동의 연장으로 시도했던 현실정치의 꿈도 바로 다름 아닌 이것이었다.



나보다 힘든 사람들을 위한 길

민주화가 정착되면서 민주를 위하여 노력하던 운동단체가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로 바뀌었다. 시대의 상황이 많이 변했기 때문이다.

“저는 민주화 운동의 방식과 내용에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제도적 민주화를 넘어서 그것의 심화와 확대가 필요한데, 그것은 민주의 핵심인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회 운동과 의사로서 활동을 병행하였던 황진과 뜻을 함께 하는 분들이 모여 시민연대 안에 환경보건위원회와 사회복지위원회로 모였다.

이 위원들과 사회복지계 인사들이 협력하여 군산시 사회복지협의회를 창립하였는데 그는 초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후 자연스럽게 복지현장의 목소리와 사회복지의 애로사항을 찾아 해소해주는 자원 봉사 활동으로 이어졌다. 사회복지와 자원봉사는 뗄 수 없는 관계이며, 둘이면서 하나인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었다.

치과 의사로서 해외 의료 자원 봉사도 했다. 캄보디아 프놈펜 외곽의 도시빈민 지역과 베트남 중부의 우리 청룡부대가 주둔했던 곳이었다.

당시에 베트남의 젊은 치과의사들과 함께 했는데, 그들은 이역만리 타국에서 ‘이들이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러는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어둡고 무거운 심정으로 갔었는데요. 말하자면 인도주의 정신

이나 어려운 이들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희생’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힘든 이들과 함께 하고싶은 마음의 길이 바로 치과의사 황진의 삶이 되었다.





YMCA와 운동권, ‘둘이자 하나’

군산 사회에서 황진이라는 이름은 기독교 장로, 그리고 운동권 의사로 불려지고 있다. 또한 그는 80년대의 혼란기, 그리고 민주화를 향한 열망이 가득했던 시기에 분명히 거리의 한 복판에 동료들과 함께 서 있었다.

운동권 정치인들의 위상이 과거보다 많이 퇴조한 오늘날 그와 같은 무명의 운동권은 살짝 칭찬받지 못하는 단어가 되어버렸다.

“제가 신앙을 위해서 헌신한 것도, 운동권으로 희생한 것도 없기 때문에 면목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 진실된 지향에 대해서만큼은 이제는 말하고 자존을 지키고 싶습니다.” 지금은 운동권과 신앙인이 별로 자랑이 못되는 안타까운 시대이기에 말입니다.

그는 YMCA안에서 기독교와 운동권은 ‘둘이자 하나’ 라고 했다. 1991년도에 홍성YMCA 출신 유희영 총장과 인연을 맺어 Y운동을 시작하였고, 나중에 한국YMCA전국연맹 이사장을 맡기도 했다.

“기독교청년회와 같은 활동은 기독교 신앙인의 신앙고백의 한 방식이지요. 또한 필수불가결한 신앙 행위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신앙은 지극히 공허하거나 심지어 위선적인 일 수도 있지요.”

세광교회 장로이기도 한 그는 예수님의 운동가적 측면이 그분이 지닌 의미의 모든 면은 결코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한 공동

체 현실속에서 이런 방식(운동권을 지칭)을 통하지 않고 외면해서 도달할 수 있는 복음에의 지름길은 거의 없다고 확신했다. “신앙인이 현실의 삶 속에서 손과 발이 없이 머리와 입만 가진 인간(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은)처럼 산다는 것은 종교적 자기 만족이나 자아도취일 뿐이지 예수님의 복음적 신앙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치관의 혼돈 시대에 스스로를 던져 행동하고 낮은 자세로 세상을 살펴보는 이가 얼마나 될까. 가슴에 손을 얹게 만드는 그의 철학이 가슴을 울렸다.

강단 있고 실천적인 인물.

아주 어렸을 때의 꿈은 큰 부자가 되는 일이었고, 나중에 정치의 가치에 대해 알게 된 후에는 여기에 대한 관심도 생겼다. 그러나 최종에는 역사학이나 신학을 공부하고 싶었다.

개업하고 나서 기독교 대한 복음교회 총회신학교와 전주 한일장신대에 있던 동남아시아 신학대학원 한국지역 과정을 졸업하였다.

지나놓고 보니 이 세가지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필수적인 관계 요소였다.

개업을 한 후 그는 소개로 만난지 3개월만에 아내와 결혼했다. 그는 아내와 아이들 셋,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흔히 필연적 인연을 말하곤 하는데 살아보니 인연은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고 살아가며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서로 노력하여 만들어진 인연들과 함께 걷는 인생길이 꽃길일 아닐까요.”



지난 2019년 측근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건강의 문제로 총선 경선 준비를 중도 포기했다. 중단 이후에 1년 이상 치과병원을 쉬어야 했다. 지금도 지역 대학병원에서 정기적인 검진을 받고 있으나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다고 했다.

“어렸을 때의 꿈 중에서 한 가지에만 집중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가끔 합니다. 지나놓고 뒤돌아보니 저는 그 꿈들을 동시에 지향해왔던 인생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모두가 아쉽습니다.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는 가끔 ‘인생을 살아보니 농사를 몇 번 짓고 끝나더라. 한 가지만 목표로 해도 짧은 게 인생이다’는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렇다, 어쩌면 그는 겉보기와 달리 강단 있고 실천적인 사람이다. 6년 동안 놓아주어 지혜를 갈고 닦았으니 한 단계 더 깊어진 내공으로 세상을 주유할 일만 남았다.

내 인생의 전부, ‘군산’

성장기 이후에 황진에게 ‘군산은 모든 것’이었다. 20대 때 성산과 대야 보건소 근무 이래로 지금까지 오직 군산에서만 살았다. 평생 얻은 경제적 수입은 모두 군산 시민들로부터였다. 그것은 갚아야 할 마음과 실제적인 빛이라고 했다.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군산은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단히 감사하고 그 감사한 만큼 행복하고 군산을 사랑합니다.”

군산이 많이 힘들다는 것은 저를 포함한 군산 전체의 일이라고 했다. 그 또한 전문직이기는 해도 자영업자이기에 몸으로 절실히 실감하고 있다.

“제가 중앙로 부근에서 35년이 넘게 일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건물에 저만 유일하게 입점해 있고 전부 비어있습니다. 이 건물만이 아닙니다. 거리의 가게들이 거의 전부 비어 있지요. 구도심도 그렇지만 다른 지역 상황도 비슷해져가고 있고요.”

사회 문제와 관련한 여러가지 일을 하여왔기에 진단도 정확했다. 인구절벽 등 국가 차원의 문제와 대기업 유출 등의 지역 차원의 문제는 물론 지나친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성의 문제 등이 중첩되어 있다고 했다.

“군산의 문제 또한 한 두가지의 특효적 해결책이 있다고 말한다면 정직하지 못한 일이지요. 다만 확실한 것은 그 해결책은 온 시민의 집단 지성적 지혜를 총화시켜서 최고의 방안을 찾아내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제도권 밖에서도 실질적 경험과 대단한 전문적 식견을 지니신 일명 재야의 고수들이 많이 있다고 했다. 제도권과 재야의 모든 시민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써 덜 부끄럽게 책임 다할 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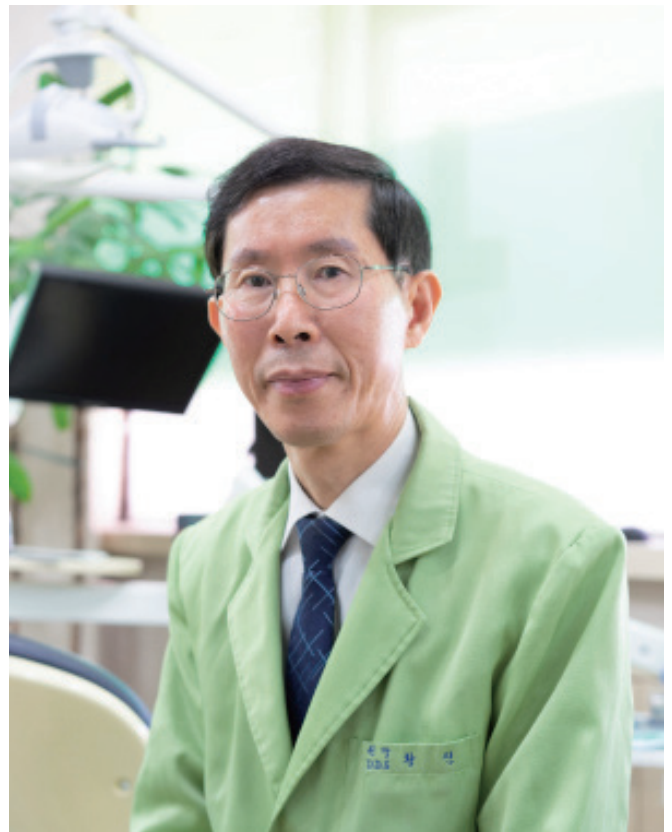
“평판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주위를 너무 의식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피곤하고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지요. 자기 자신만이 갈 수 있는 고유하고 고귀한 인생길이 각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소한 욕 먹고 손가락질 당하며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명색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황진 원장.

그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써 그 뜻 대로 사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 부끄럽지만, 내 삶의 근거와 가치 판단의 기준, 잣대를 적어도 거기에 두려고는 한다고 했다.

약력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기독교 대한 복음교회 총회 신학교
동남아시아 신학대학원 한국지역과정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전북 회장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 대표
군산시 사회복지 협의회장
군산 YMCA 이사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군산시협의회장, 상임위원
한국 YMCA 전국연맹 이사장
군산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더민주혁신회의의 전북 공동대표



조미숙 한국무용가(호남산조 이수자)

“온전한 사람의 뜻과 향기로 치유하는 삶”
배우고 나누고 함께하는, 전통 맥 잇는 춤꾼

글 | 최승호
gsport11@naver.com

춤, 운명, 그리고 사람들...

귀에 익은 춤 장단 소리와 구음(口音)이 잔잔히 연습실 밖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무대 공연장 같은 분위기를 내는 출입문 앞엔 이날 강습에 출석한 학생들의 것으로 보이는 신발들이 가지런히 자리 잡고 있다. 미룡동에 있는 군산시평생학습관이다.

“하~나 두~울 세~엿 네 옛... 돌까지 보고, 왼발이 앞에, 시선은 오른쪽 멀리 보는 느낌으로”, “아니 아니, 다시 다시...” 학생들이 전면에 설치된 대형 거울을 바라보며 한국무용 수업이 한창 중이다. 연습하는 학생들은 모두 13명.

50~70대의 젊게(?) 보이는 학생들의 표정과 몸짓이 진지하다. 갑자기 출현한 낯선 이방인의 시선도 무시한다. 형형색색 화려한 무용복을 입고 거울 속의 자신의 춤사위를 보면서 앞에서 지도하고 있는 선생님의 목소리에도 의식을 최대한 집중하는 느낌이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조미숙 선생님이다.

한국무용가, 무형문화재 호남산조 이수자. 농사꾼...



군산시평생학습관 제자들과 함께

선생은 '조영자 농악대'와 '올림터'에서 20년 동안 상장구(농악대-풍물패)에서 여러 장구 치배들 중 리더(역할)이 시작이었다. 전통 연행예술에 발을 들이고 지금까지 쉼 없이 무대에서 강습실에서 땀 흘리고 있다. 2000년 12월 군산대 평생교육원에서 '태평무'이수자 故 최은정 선생님을 만나며 '한국무용'에 입문했다. 강산이 두 번 훌쩍 바뀌었다. 운명이었다. 그녀는 이후 전주에 거주하시는 무형문화재 '호남산조' 금아 이길주 보유자의 지도로 넓고 깊은 춤의 세계에 침잠하기 시작했다. 2020년 3월 이수 교육을 시작으로 2023년 7월 드디어 이수자로 지정되었다. 분명 선생 개인 만의 경사는 아닐 것이다.

[호남산조:전북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47호 지정. 호남지역의 판소리와 시나위를 바탕으로 한 산조음악에 맞추어 추는 입(立)춤 형식의 춤. 특히 호남지방 기방(妓房)춤의 성향을 잘 간직하고 있으며 인위적 기교나 정형화된 움직임보다는 천지인(天地人)의 조화와 절주(節奏)를 따르는 몸의 기(氣)와 리듬을 춤으로 자유롭게 형상화한 것이 특징이다. 출처:2015년 4월 22일 국립국악원 예약당, 한국춤제전 브로셔 편집작업 자료 중]

호남산조 금아지무(金娥之舞)

다시 군산시평생학습관.

학생들이 오늘 배우는 춤은 '호남산조 금아지무'이다. 금아는 이길주 명무의 호이다.

"두뇌와 온 몸을 다 쓰는 점이 좋다. 호흡을 통해 건강이 좋아진다. 운동량이 엄청나다. 정중동(靜中動), 동중정(動中靜)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춤으로 소통하고 생활 속의 희노애락을 공유한다" 9년 학도인 조미희 회장님의 총평인 듯하다. "선생님의 성격이 베푸는 마음이다. 많은 사람들과 공감하고 사적인 욕심이 없으시다." 이어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새로운 도전과 성취하는 행복감이 절로 느껴진다. 선생님의 춤을 배우는 순간과 시간은 존경스럽고 끝까지 함께 하고픈 마음이자 이유이다." 그녀를 대상으로 한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한 무용 전공자를 포함한 젊은 제자들이 한결같은 마음을 전한다. "선생님, 건강하세요~~~~". 문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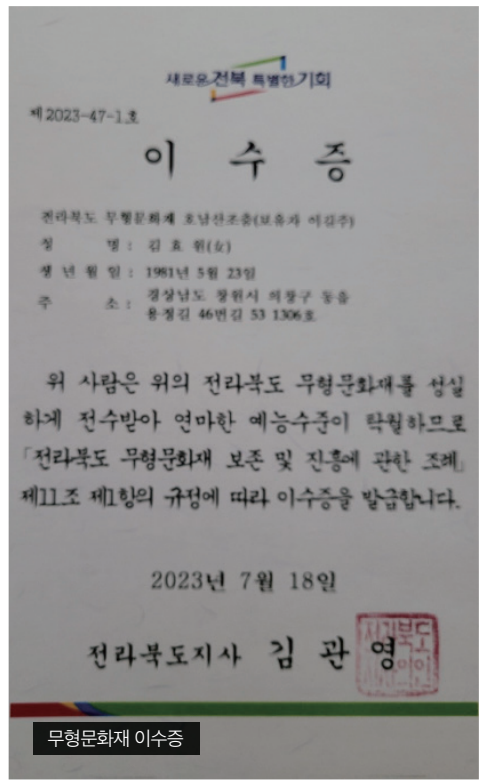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무형문화재 이수증

나에게 춤은, 예술이란?

필자의 질문에 잠시 생각을 멈추고 주저 없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단어는 “Healing”. 아! 이분의 삶에서 춤은 ‘치유’였다. “가락에 몸을 실어 움직일 때는 정성을 다하여 집중해야 실수하지 않는다.” “기쁠 때나 슬플 때의 모든 희노애락을 춤과 함께 정화하였기에 춤은 내 삶의 원동력이자 해방구의 역할을 해왔다.” 이렇듯 춤을 통해 시간의 기억들을 녹여냈기에 그녀에게 춤은 몸을 통해 만들어지는, 자기 언어의 또 다른 표현이다.

조미숙 선생은 이러한 춤을 오롯이 혼자 누리지 않고 이웃과 나누며 봉사를 통해 공유하며 즐기는 ‘소통의 예술’에 대한 강하고 진지한 바람이 있다. 자신과의 약속이기도 하다.

그녀의 춤에 대한 사랑과 다짐은 지역사회에서 한국 ‘고전 무용의 맥’을 이어가는 것이다. 쉬워 보이는 동작 하나라도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아 배워가는 시간이 쌓일수록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한국무용이다. 사실이 그렇다.

우리 것이지만 제대로, 제때 배울 기회가 부족한 것이 슬픈 현실이다. 물리적인 부족함보다는 우리 자신들 인식의 문제라고 지적해온 것 또한 오래된 일이다. 그래도 선생은 늘 감사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이다.

긴 시간 동안 그녀를 둘러싼 어둠에 묻히지 않고 스스로 뚫고 들어가 그 끝에서 마주한 고통과 어떤 한계를 감추거나 피하지 않고 밝고 고운 빛의 방향으로 끌고 나오는 용기를 존경한다. 그리고 자기의 것을 모두 내줄 수 있는 넉넉함과 솔직함. 자기에게 엄격하고 타인에게 더 내주는 온전한 사람의 냄새와 맛이 그득하다. 감사할 뿐이다.



개정동 제자들과 함께



군산시평생학습관 제자들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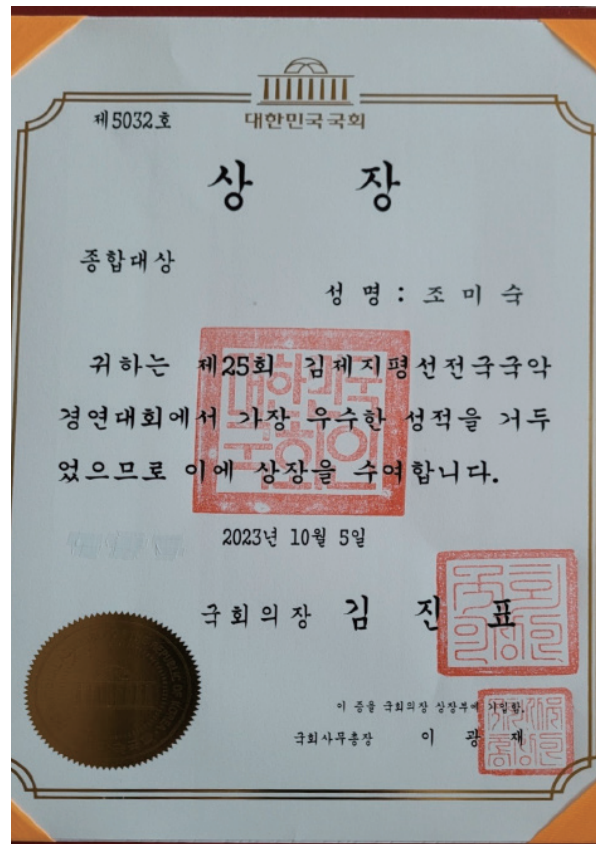
오감을 자극하며 도파민(dopamine) 덩어리 같은 춤이 난무하는 칼군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요즘이다. 사람이 하늘 땅을 춤사위로 넉넉히 안듯이 전통을 그대로 고수하고 맥을 이어가는 길은 협착(狹窄)하다. 이 길 위에서, 군산에서도 전통의 뿌리와 맥을 놓지 않고 함께 배우고자 하는 시민들과 아낌없이 호흡하는 것이 그녀가 바라는 춤에 대한 꿈이다. 행복이다.

“군산시에서 제공하는 교육의 지원에 감사하다. 순수 전통예술이 사라져가는 때에 군산시 문화예술정책 덕분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라며 “전통의 맥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 밝게 말씀하신다.

조미숙 선생은 춤추고 농사짓고 장구치고 학생들을 가르친다. 봄이다. 벚꽃, 목련, 개나리, 동백꽃이 그녀의 옆에서 붉은 미소를 활짝 피운다...

[조미숙 한국무용 강습]

- *군산시평생학습관 ; 2017년 시작 ~ 현재
- *개정동주민센터 ; 2009년 3월 시작 ~ 현재
- *흥남동주민센터 ; 2015년 3월 시작 ~ 현재
- *찾아가는 동네 문화 카페 (지곡동 소재) ; 2017년 시작 ~ 현재



진심을 우려낸 일품 손맛, 같은 듯 다른 전통차

‘쌍화당(雙和堂)’ 신인숙 대표

글 | 오성렬
poi3275@naver.com

지난 3월 중순, 서흥남동 도로변에 문을 연 전통차 전문점 ‘쌍화당’에 하루가 다르게 고객들의 발길이 늘고 있다. ‘쌍화당’이라는 상호 때문인지 쌍화탕을 찾는 고객이 많지만 사실 이 집의 메뉴는 쌍화탕 외에 대추차, 오미자차, 자몽차, 유자차, 자몽에이드, 메로골드에이드, 제철과일주스, 딸기라떼, 식혜, 팔빙수, 오란다, 약밥, 팔양갱, 유자양갱 말고도 커피와 믹스라떼를 망라한다.

경북 청송 출신으로 오래 전 군산과 인연을 맺어 소외계층 대상 사회봉사활동에도 열심인 신인숙 대표는 지난 3월 평소 구상하던 전통차집을 개업한 것으로, 최대한 가장 우수한 국산 식재료를 선택, 모든 메뉴 하나하나에 걸쳐 정직과 성실을 담아 오랜 시간 달여 낸다는 자부심으로 고객을 맞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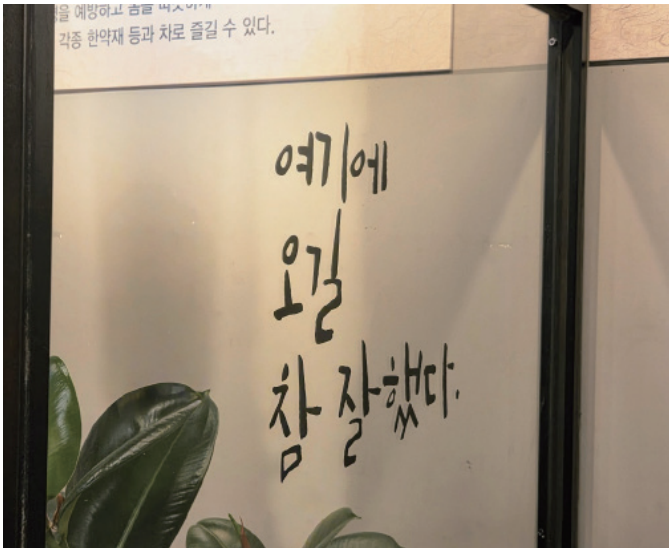


신인숙 대표(우측)와 김경순 공동대표(좌)

쌍화탕은 한의학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전통 처방으로 ‘음·양의 두 기운(雙)을 조화(和)롭게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동의보감에 기록된 이 귀중한 처방은 황기, 당귀, 천궁, 숙지황, 백출, 백작약, 감초, 대추, 생강, 계피 등의 한약재로 구성되며 각각의 약재들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냄으로써 현대인의 건강 증진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따라서 쌍화탕은 피로 회복과 에너지 증진, 면역력과 소화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주며 따뜻하게 데워 섭취할 때, 그리고 식후 30분 내 섭취가 권장되며 필요에 따라 꿀을 첨가하면 맛과 영양가를 모두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최근엔 전통차 전문가들 사이에서 저마다의 비방을 적용함으로써 미각과 효능을 차별화하기도 한다.

쌍화당 차의 첫 맛을 본 고객의 일성은 ‘여기서 직접 하셨느냐’이다. 아마도 직접 달인 수제차의 맛을 알고 확인하고 싶어서 일 게다. 신 대표는 맛을 쉽게 낼 수 있는 원료들을 구입해서 만들 수도 있지만 평소의 소신에 따라 정성 들인 수제차의 맛을 구현하고자 전수 받은 방법 그대로를 고집한다. 한 고객은 쇼케이스의 오미자차 원액을 보더니 어렸을 적 아빠가 산에서 따온 오미자로 담갔던 그 색깔이라면서 요즘 어디에서도 눈에 띄지 않았는데 여기서 보게 된다며 엄청 반가워 하기도 했다. 좋은 재료와 정도를 지킨 자신의 방식이 이처럼 좋은 결과물로 나타난다는 것에 신 대표는 더없는 뿌듯함을 느낀다.





된장, 고추장을 우리나라 슬로우푸드의 대명사로 여겨왔다는 신 대표는 차(茶)를 공부하다보니 수제차 또한 재료의 진국이 우려날 때까지 숙성을 기다려야 된다는 점에서 이 역시 진정한 슬로우푸드라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쌍화당의 메뉴를 맛보고 정말 맛있으며 엄지척을 하는 고객을 보는 순간 그동안의 고생과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고 힘이 솟는다.

신 대표의 사업 철학은 정도(正道)를 걷는 것이다. 힘들 때면 쉬운 길을 찾아 자신과의 타협 충동을 받기도 하지만 진심으로 빚어내는 정직한 차 맛을 고객들이 언젠가는 인정해 주리라는 기대로 먼 미래를 내다본다. 전통수제차집이다 보니 그만큼 손이 가는 일이 많다. 쌍화차, 대추차를 달이고, 오미자차를 내리는 일, 생강 다듬어 손질하는 일, 밤을 깔고 은행과 땅콩을 볶는 일, 각종 과일 손질하는 일, 양갱과 약밥, 오란다를 만들고 하다 보면 하루가, 그리고 일주일이 쏜살같이 지나간다.

한 작업을 끝내고 뒤돌아보기 무섭게 다음 작업이 또 기다리고 있다. 신 대표에게 다년간 고객들로부터 들은 말 중 '초심을 잃지 말라'는 말이 가장 무겁게 가슴에 와닿는다. 흔히 쓰는 말이지만 무언가를 도모하는 사람들에게겐 흘러들어서는 안 될 말이 아닌가 한다. 차에 대한 지금의 이 열정과 성실함, 그리고 정직함을 인정해 주는 고객들이 너무 감사하고 따라서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이 찾아주는 그분들에게 결코 실망을 드려서는 안 된다는 다짐을 수없이 반복한다.

따라서 이 수고로움과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잘 달인 차 한잔이 단순한 차를 넘어 심신에 활기를 주는 보약으로 작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 또한 자신의 업소가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 차 한잔의 따뜻한 온정이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까지 전해져 나눔의 삶이 확산되기를 바라고 있다.



봉사활동 중인 신인숙 대표(가운데)와 김경순 공동대표(우측)



쌍화당 내부

이렇듯 평소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관심이 컸던 신 대표는 수년 전부터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사회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모색해오던 중 군산 착한동네라는 비영리단체에서 소외계층 대상 반찬 배달 봉사자를 찾는다는 것을 알고 막 바로 이 봉사단체에 참여했다. 준비한 반찬을 소분하여 대상자 가정에서 전달하는 봉사활동과 함께 후원을 해오고 있는 그 보람된 일이 어느덧 5년 차에 이른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이웃과 사랑하고 도우면서 아름답고 살기 좋은 마을을 함께 만드는 새마을회 후원도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소소한 행복을 가꾸어가는 참군산인으로 주위의 신망을 두텁게 하고 있다.

전통찻집 '쌍화당'
군산시 촉동로 154
영업시간 오전10:30~오후10시





콘트라베이스 연주의 정석

한국음악협회 군산지부 지부장 정효숙

글 | 신성호
shinez2580@hanmail.net

벚꽃이 만개하여 꽃잎이 흩날리는 군산의 관광명소 은파호수공원의 조그마하고 아담한 카페에서 허슬러향의 커피를 시켜놓고 정효숙 (사)한국음악협회 군산지부 지부장을 만나 음악에 관한 이야기. 그 속에서도 콘트라베이스를 연주하게 된 이야기와 음악협회 지부장으로의 포부를 들어 보기로 했다.

진정한 음악 콘트라베이스의 선택

정효숙 지부장은 유년시절부터 목표를 한번 세우면 꼭 이루고야 말겠다는 굳센 신념이 강하여 특히, 자기와의 싸움에서 지지 않으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가 있는 광주중앙여고 시절에 콘트라베이스 연주를 재학 중에 학교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였고, 졸업 후에도 남다른 콘트라베이스 연주 실력을 인정받아 1979년부터 10년간 광주시립교향악단을, 1989년부터 3년간 전주 시립교향악단을 거쳐 1992부터 2021년까지 군산시립교향악단에서 연주자로 근무하였고, 2021년 12월 31일에 퇴임하였다.

왕성한 활동의 원동력

1984년 전주대 음악학과를 졸업하고, 2002년에 체코 오파바 시립 음악원을 수료하고 체코 오파바 오케스트라와 협연하였다.

현재는 자양중학교, 군산여자고등학교, 서천여중 오케스트라 강사로 힘쓰고 있다. 2015년에는 후배들의 연주자리를 마련해 주고자 군산 신포니에타를 창단하여 지금까지 매년 1~2회의 정기 연주회를 하고 있다.



일본가고시마 연주를 마치고



스페인 공연



체코오파바오케스트라와 협연



군산심포니에타 공연



폴란드 카토비체 공연

군산심포니에타 소개

군산심포니에타는 음악을 전공하는 음악인들이 함께 모여 지역 문화예술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로서 보다 질높은 음악으로 많은 이들이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나아가 군산의 문화 이미지를 부각 시키는데 큰 의의를 두고 있는 명실상부한 실내악단이다.

예술적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군산심포니에타는 참신하고 다양한 기획력과 프로그램으로 그동안 군산시민들의 정서적 함양과 양질의 음악 수준을 제공함은 물론 지역 내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으며 연주회를 통하여 간단없는 발전을 이루어 왔고, 음악애호가들에게는 물론 각계각층의 시민들에게 뜨거운 호응과 찬사를 받고 있다.

한편 2015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군산희망음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관객들에게 문화의 진수를 전달해 주고 그들에게 많은 호평과 함께 뜨거운 갈채를 받았으며 다시 한번 군산은 물론 전북특별자치도를 넘어 음악발전사에 신선한 파문을 던져 지방의 클래식 음악이란 틀을 벗어나 활발하게 강사로 나아가 후배양성에 힘쓰고 있다.



독일 성당 공연



체코오파바오케스트라와 협연



폴란드 토론 공연장에서

도전과 열정

사실, 모든 예술은 많은 연습과 노력으로 자기와 싸움에서 이겨내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실력이 되는 것처럼 콘트라베이스 연주도 배워서 실력을 쌓는 것도 있지만 혼자서 끊임없는 노력과 연습을 해야만 실력을 인정받을 수가 있다.

하고 있다.

정효숙 지부장이 한때는 미술도 같이 공부를 하고 싶어 시도해 보려고 했지만 결론은 콘트라베이스 연주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

내일의 도전과 비전

정효숙 군산음악협회 회장은 2024년 5월 10일 (사)한국음악협회 군산지부 지부장으로 임명되어 군산음악협회 회장으로서의 맡겨진 사명을 다할 것이며 회원들과의 소통은 물론 단합된 역량을 바탕으로 다양성 가지고 신명 나고 즐거운 음악예술의 정수로 군산시민과 음악애호가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군산음악협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이끌어 가겠다고 다짐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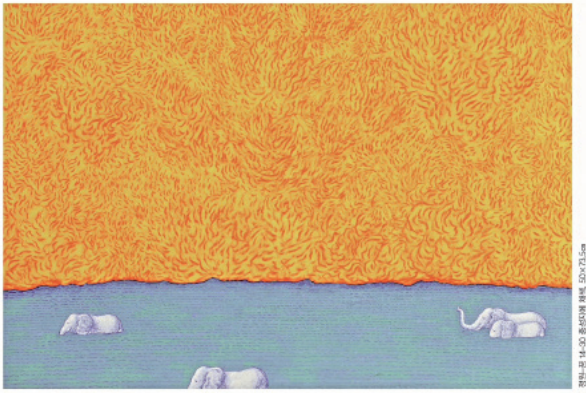
이용석 작가 - 정원의 꿈, 색으로 피어나다

노블한방병원 '갤러리 노블' 초대전

글 | 이영미
ycm1022@hanmail.net

한 폭의 그림 앞에 멈춰 선 외래환자가 조용히 말했다.
“그림 앞에 서 있기만 해도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 같네요.”

노블한방병원 2층라운지에 조성된 '갤러리 노블'에서 열린 이용석 작가의 개인전 《정원-꿈》은 그런 순간들을 만든다. 정적인 색과 유영하는 코끼리, 단순하지만 단단한 구성이 주는 힘. 병원을 찾는 사람들은 그림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꺼낸다. 그리고 그곳에는 작가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LEE YONG SEOK

정원-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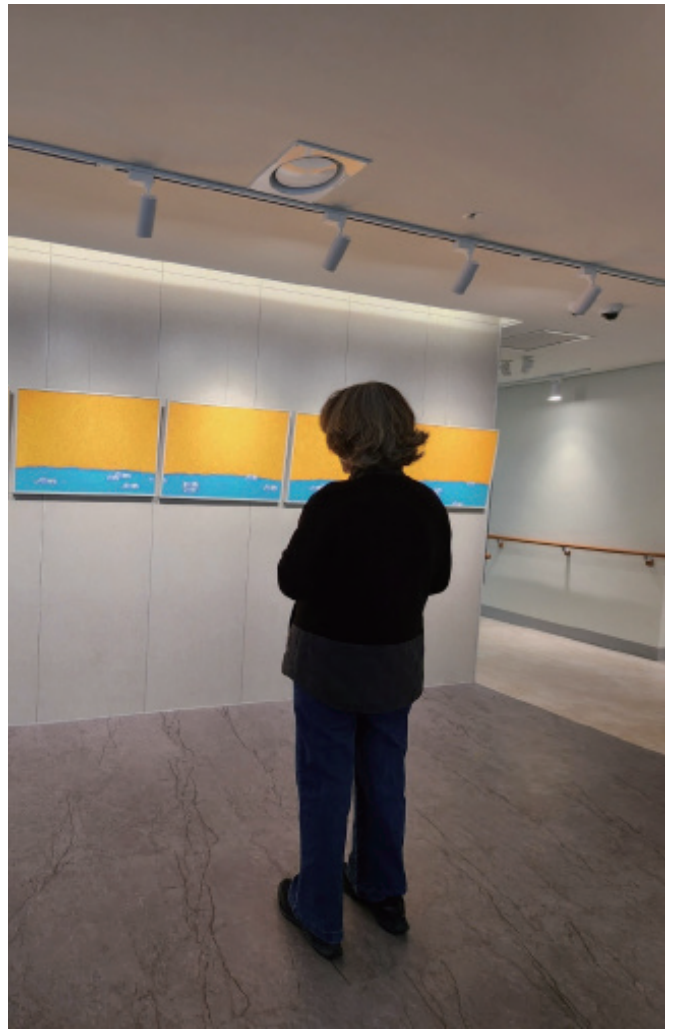
2025. 4. 15. 6. 30

주최: 서울문화재단

개최처: 노원

전체: 군산시 문화로 53 노원문화재단 2층

작품구입 문의: (430) 서울문화재단 T.010-6371-7174



이용석은 어릴 적 그림을 좋아하던 소년이었다. 화가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꿈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본격적인 현실이 되었다. 홍익대학교 동양화과와 대학원에서 전통 회화의 근간을 배웠고, 대학원 시절에는 인물과 도시풍경을 주로 다루며 자신의 표현 언어를 형성해 나갔다. 졸업 이후, 붉은 주묵을 사용해 도시 속 식물원을 정원으로 해석하는 작업으로 나아갔다. 이 정원은 점차 확장되며, 《정원-꿈》이라는 현재의 시리즈로 이어진다.

정원이라는 상징은 작가에게 단지 식물이나 공간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가 겪어온 내면의 시간들이고, 회복의 흔적들이다. 작업과 생활의 균형이 무너졌던 어느 시기,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고, 함께 건디고자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정원-꿈의 주제가 되었다. 그 안에는 묵묵히 걷고, 참고, 마침내 자신의 길을 만들어 나가는 작가의 태도가 녹아 있다.

이 시리즈는 1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으며, 재료와 기법, 색채의 사용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초기에는 한지와 주묵을 기반으로 했던 작품들이 이제는 캔버스와 오일 파스텔 등으로 옮겨졌다. 이미지의 중심에는 언제나 존재하는 코끼리가 있다. 유영하듯 등장하는 이 존재는 작가에게 있어 '시련을 건디며 나아가는 모성적 상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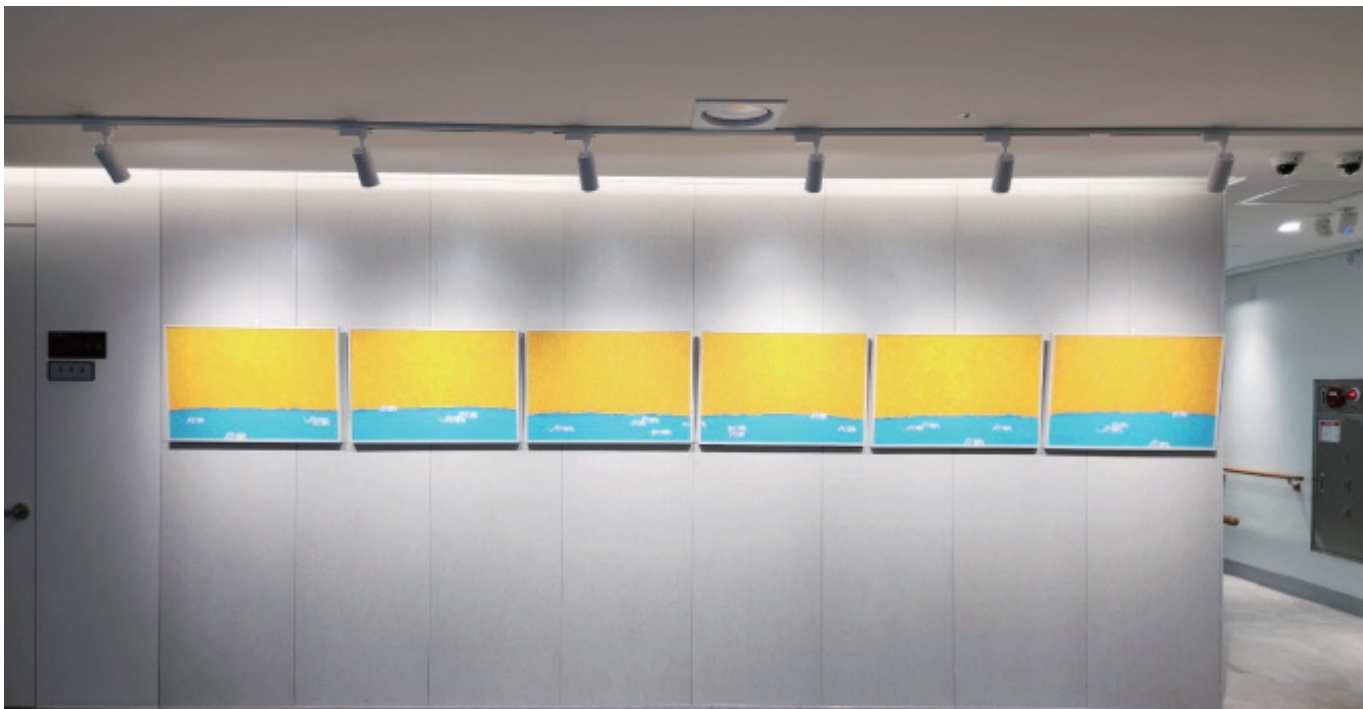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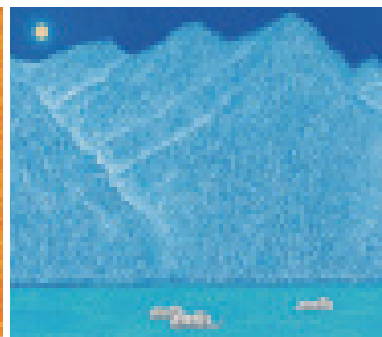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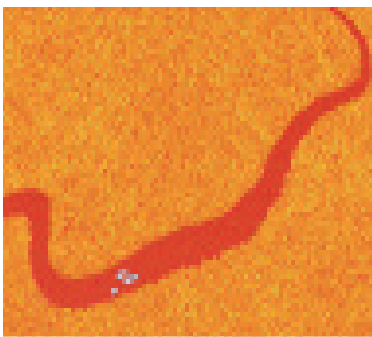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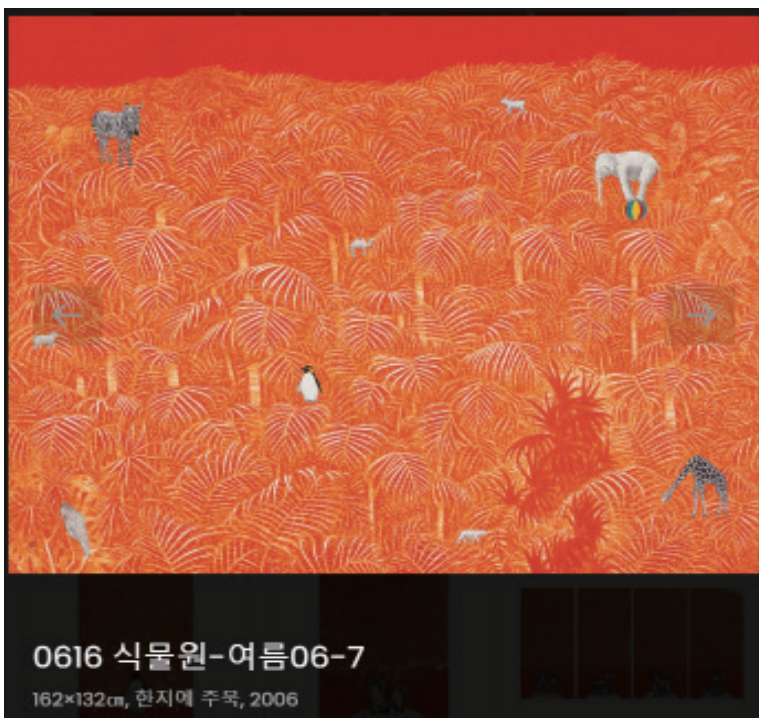


그림 속 색채는 강렬하지만 부드럽다. 노란색과 붉은색은 단순한 시각적 요소가 아닌 감정의 은유다. 대상의 고유색이 아닌, 자유로움에 대한 작가 개인의 열망이 투영된 색이다. 그에게 색은 감정 그 자체이며, 해방과 희망의 언어다.

이용석 작가의 영감은 언제나 일상에서 온다. 자동차를 타고 멀리 떠나는 길 위, 또는 낮선 지역에서 마주친 지평선의 풍경. 그 장면들이 마음에 남고, 마음속에서 변형되어 작업으로 옮겨진다. 그는 말한다. “그림은 제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제 안에 축적된 감정과 풍경들을 가장 솔직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식이에요.”

작가는 현재 원광대학교 미술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교육과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교육자로서의 삶은 때로 작업을 멀리하게 했지만, 그는 그것조차 자신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예술적 경험이라 여긴다. “지역 문화 활동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학교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접할 수 없었을 일들이죠.”

이번 전시는 작가에게도 새로운 실험이었다. 일반적인 미술관이나 갤러리가 아닌 병원이라는 공간, 그리고 환자와 보호자라는 특별한 관람객.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오히려 이 공간이야말로 그림이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장소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다.





《정원-꿈》 시리즈 중에서도 이번에 전시된 작품들은 '삶의 희망'을 전달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지를 반영한 작품들이다. 작가 자신이 힘겨운 시기를 견디며 다짐했던 그 마음을, 이 공간을 찾는 이들과 조용히 나누고 싶었다.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그는 담담하게 말한다.
“다시 주묵 작업도 하고 싶고, 더 큰 대작에도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표현 방식에서도 좀 더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노블한방병원의 조용한 정원 속, 색과 이미지로 피어난 《정원-꿈》.
그림은 말을 하지 않지만, 보는 이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법을 안다.



이용석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및 동대학원 졸업
/ 미술학 박사

개인전 28회

기획전

같이 가치 기치!(문화예술공간 오늘)

오십보 백보(우진문화공간)

한국화 3세대 물결(한벽원미술관)

묵상만천(지진당)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진도향토문화회관)

피서:더위를 피하는 방법(이천시립월전미술관)

8월의 정원 (유나이티드문화재단)

하버아트페어(마르코 폴로 홍콩)

Who are you(삼탄아트마인 CMA갤러리)

한국화의 반란(서울 시립미술관·북서울)

즐거운 상상(롯데에비뉴얼)

화랑미술제 (COEX, HALL D, 갤러리 세줄)

제2회 인사미술제 (동산방화랑)

가나아트 25주년 기념전 The ch ART (Gana Art Center miru + art plus)

ART Singapore 2008 (SUNTEC SINGAPORE, LEVEL4)

노아의 방주 (국립현대미술관)

신소장품전(국립현대미술관)

고요의 숲전 (서울시립미술관)

커팅앤티지-공·통·감 (서울옥션스페이스)

작품소장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아트뱅크, 디 키스, 씬지, 한원미술관 등

현재 원광대학교 교수

Cellular Phone 010-6314-1490

E-mail yongsuk0311@hanmail.net



기부와 나눔이 함께한 제7회 군산골프대회

4월 10일 군산CC 부안, 남원코스에서 진행
김임호(남)·이혜정(여) 선수 남녀부 각각 1위 차지

글 | 김혜진, 사진 | 한대산
kimhyejin0324@hanmail.net
jbekt@naver.com

봄을 알리는 계절 4월을 맞아 전국의 골프동호인들을 대상으로 열린 새군산신문 주최 '2025군산골프대회'가 지난 10일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는 대선 체제 돌입으로 정치적 행사를 지양하고 차분하게 치러졌다.

또한, 골프 동호인들만의 잔치에서 벗어나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돕고 미래의 유망주 선수들에게 도움을 주는 소통과 협력의 대회로 자리매김했다.

군산골프대회운영위원회(대회장 최상순, 정다운병원장)와 새군산신문이 주최한 이번 대회는 지난 4월 10일 군산CC 부안, 남원코스에서 티업했으며, 40개 팀 160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먼저 이번 대회에서 센스 있는 의상으로 필드를 빛낸 박성숙 선수가 '패셔니스트상'의 주인공으로 선정돼 선수들의 환호성을 이끌어냈다.

대회 성적을 집계한 결과 남자부에선 김임호 선수(신페리오 점수 66)가, 여자부에선 이혜정 선수(신페리오 점수 70.6)가 각각 우승 컵을 들어올렸다.

남자부 2위엔 장정식(신페리오 68.8) 선수, 여자부 2위엔 표규남(신페리오 70.8) 선수가 결정됐으며, 남자부 홍완철(신페리오 70) 선수와 여자부 김금옥(신페리오 71) 선수가 3위에 입상했다.

또한 이지민(월명초 5), 이윤지(만경여고 2) 등에게 각각 50만원씩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군산경제 살리기 캠페인' 동참하는 한편, 서군산무료급식소에 대야농협(한전수 조합장)이 기증한 20kg 들이 사랑의 쌀 10포대, 옥구농협(전봉구 조합장)이 기증한 10kg 들이 사랑의 쌀 20포대 등을 전달했다.

최상순 대회장은 "봄을 맞아 열린 이번 군산골프대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고 자라나는 골프 유망주들을 돌보려는 협력과 소통의 마음이 더욱 끈끈해졌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7회째를 맞은 본지 주최 군산골프대회가 골프 꿈나무들에게 매년 후원금을 지원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손을 내미는 등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대회로 자리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지역의 뜻 있는 기업인들과 동호인들이 이 대회를 위해 성금과 경품을 후원에 나서는 등 성황을 이뤘다.

신문사와 대회운영위원회, 그리고 골프 동호인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장학금은 차세대 골프선수를 꿈꾸는 꿈나무들의 후원금으로 사용됐다.

지난 10일 오후 1시 30분 군산CC에서 열린 2025군산골프대회(대회장 최상순 정다운병원 원장)는 이지민, 이윤지 학생에게 총 100만원을 전했다.

후원을 받은 이지민 선수는 월명초등학교 5학년, 이윤지 선수는 만경여고 2학년에 재학 중인 장래가 촉망되는 골프 유망주들이다.

골프 유망주들은 경기 전 파이팅을 외치며 경기에 임했으며, 필드 위에서 각자 갖고 닦은 실력을 십분 발휘했다.

올해 골프대회에 참석한 이지민, 이윤지 선수는 "이번 대회를 위해 후원해 주신 새군산신문과 최상순 대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앞으로 커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가 되어 지역에서 응원해준 데 대해 멋진 경기로 보답하고 싶다"고 다짐했다.







만찬장에서 담소로 긴장을 푸는 선수들

40개 팀 160여 명 선수 참여한 스포츠 축제 상생하는 대회로 성장 기대

골프 동호인들만의 잔치에서 벗어나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저히 이번 대회에는 이동을 할 수 없었던 만큼, 군산항의 한만 경제를 책임지는 하역사 대표들이 대거 참여해 대회를 빛냈다.

대회에 앞서 골프 동호인들과 운동을 사랑하는 시민 40팀을 선착순으로 접수받았으며, 선수들의 참여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대회 약 2주일 전 접수를 일찍 마감했다.

꽃샘추위를 지나고 날씨가 부쩍 따뜻해진 가운데 열린 이번 대회는 지난 10일 오후 1시 30분 군산CC 부안·남원코스에서 샷건 방식으로 열렸다.

골프 꿈나무 이지민(월명초 5), 이윤지(만경여고 2) 선수를 초청한 가운데, 최상순 대회장과 박승일 본지 회장(우주환경 대표), 강운구 티엘종합물류 대표, 박용배 프로, 고성식 광성건설 대표이사, 박동호 삼호종합사무기기 대표, 양재석 골프협회장 등이 초청 라운드에 참여했다.

이번 대회는 봄을 맞아 따뜻한 날씨 속, 골프 꿈나무들과 골프 동호인, 선수, 시민 등 각계각층의 참가자들이 경쟁 여부를 떠나 즐거운 경기에 임했다.

대회 시작 전 군산CC 내 대회 접수처에서 간식 등 경품을 제공

했으며, 기념품을 샷건 방식의 티업 장소로 이동하는 중간에 제공하는 등 인원을 효과적으로 분산시켰다.

대회가 끝날 때 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한 운영위원들의 헌신도 빛났다.

최상순 대회장은 정다운병원의 엠블런스를 대회기간 중에 군산CC에 배치하여 만일의 부상 사태에 대비해 대회의 품격을 높였다.

박금옥 군장대CEO특별과정(PXG군산 대표) 회장은 50인치 LED TV 1대를 경품으로 내놓았다.

이번 대회 운영위원장인 최상순 대회장과 박승일 본지 회장 및 신문사 운영위원들은 2025군산골프대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내놓은 성품을 서군산무료급식소에 전달했다.

옥구농협에서 서군산무료급식소를 위한 쌀 10kg 20포대를 전달했으며, 이번 대회를 통해 최상순 대회장이 서군산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김민재 예사봉사단 단장에게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상순 대회장은 “이번 대회는 운동을 즐기시며 군산경제 살리기 위해 함께 하는 의지도 다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꿈나무들을 육성하려는 마음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모두가 힘든 지금, 함께 극복하고 서로가 응원하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각오와 약속을 함께 올린다”고 말했다.



위에서 시계방향으로: 김임호(남)·이혜정(여) 선수와 최상순 운영위원장, 패셔니스트상 박성숙 선수와 김민재 본지 운영위원장, 소상공인연합회 골프회 이영묵 회장 (오른쪽)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최상순 대회장, 필드 위 선수들



중세미술 3. 로마네스크 미술



로마네스크 대표적 건물 / '더럼 대성당'

중세 미술의 세 번째 주자는 '로마네스크 미술'이다. '중세'는 철학과 사상 모두 인간 중심의 예술을 구현한 '고대 그리스 로마'와 15세기 다시 인본주의* 인간 중심의 문예 부흥을 일으켰던 '르네상스'의 시대로 돌아가기 전까지 로마와 르네상스의 사이에 있었던 시기였다.

중세 역사 속의 10~12세기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로마네스크'의 어원은 '고대 로마스러운' 또는 '고대 로마를 닮은'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이 시기 역시 이 전 시간 칼럼에서 소개된 초기 기독교와 비잔틴 미술과 같이 예술, 경제, 정치를 통틀어 기독교 철학관의 신 중심적 힘이 지배적이었던 시기였다. 예술품으로 남겨진 건축, 조각, 회화들 역시 중세미술의 전반기와 별다르지 않다. 그리하여 이번 시간에는 로마네스크시기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인 세 가지 사건과 건축과 조각에서 특별하게 발전된 두 가지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로마네스크 시기 가장 크게 주목될 사건은 카노사의 굴욕, 십자

군 원정, 아비뇽 유수 이 세 가지이다. 이 사건들은 권력의 힘이 지배하는 방식과 경제와 인구 이동의 흐름에 따라서 예술 또한 그 흐름을 따라가게 된다.

먼저 첫 번째 사건 '카노사의 굴욕'(1077년)이다. 중세는 암전하게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 되었다기보다 교황과 세속 왕들의 대립이 계속되었던 시기였다. 서유럽의 교황은 땅과 재산을 비축함으로 백성을 다스릴 힘이 있었는데, 주교를 임명하는 '서임권'을 둘러싸고 일어난 싸움 이었다. '카노사'라는 지역에서 그레고리 7세라는 로마의 교황에게 서로마 황제 하인리히 4세가 1077년 1월 25일부터 3일간 파문을 철회해 달라며 애원하는 사건으로써 교황이 왕(독일)의 힘을 제지하며 교황이 왕을 굴복 시킨 사건 이었다.



카노사의 굴욕

두 번째 사건은 '십자군 원정'(1095~1492년)이다.

십자군 원정을 간략하게 핵심을 정리하자면, 이슬람으로부터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할 목적으로 유럽 카톨릭 세력이 중동지역의 예루살렘을 8차례 걸쳐 대략 400년간의 침략이 이루어진 원전 전쟁이다.

이 전쟁은 이슬람에 맞서며 성지 탈환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교황의 정치적 야욕과 영주들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힌 현실적인 전쟁이었다. 각자 쟁취하려는 힘의 주권 세력을 통해 십자군 전쟁 초기에는 교황의 위세가 상승했으나 결국 원정 실패로 권위가 하락 했다고 한다. 토지를 소유했던 제후와 기마로 싸우던 기사들의 힘 역시 몰락하며 자연스럽게 중세는 소멸로 이어졌고, 르네상스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가르마가 된다.

400년간 8차의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동 경로를 따라 변화가 나타났다. 향료, 비단, 도자기 등 동양 산물들은 베네치아를 중심으로 지중해 원거리 무역이 활발해져서 상공업 및 인근 도시가 발달하게 된다. 또한 전쟁으로 인한 접촉으로 비잔티움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유입되기도 하였다.

이 긴 시간 동안 경로를 따라서 교회, 성당, 수도원들도 세워졌으며, 미술 문화 역시 이 종교적 흐름을 타고 같이 이동 발전을 거듭하게 된 것이다.



십자군 원정

세 번째 사건은 '아비뇽 유수'(1309~1377년)이다. 아비뇽 유수는 위의 '카노사의 굴욕' 사건의 2차전이라고 볼 수 있다. '유수'란 유배를 보내서 가둔다는 뜻이다. 당시 프랑스의 왕 필립 4세가 당시 교회로부터 금전을 비축하고 싶어 했는데, 교황과의 마찰이 빚어지게 되었다. 이에 왕은 군대를 보내서 교황을 압제 하였는데 한달 뒤 교황은 죽게 되고, 이후 68년 동안 필립 4세 왕의 입맛에 맞는 7명의 프랑스인 교황을 즉위시키며 로마 교황청을 남프랑스로 이전한 사건이다. 이것은 카노사의 굴욕과는 반대로 왕이 교황을 제지 했던 사건 이었다.



아비뇽 유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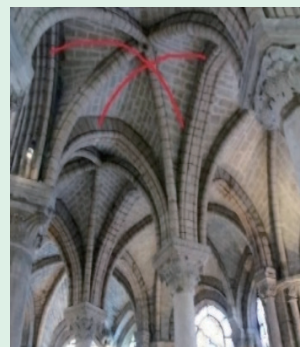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있는 '로마네스크 미술'로 다시 돌아와 보자.

이 시기의 건축은 서유럽 전역에서 나타난 공통된 미술 양식으로 기독교적 중심의 건축이 발달 하였다. 같은 시기에 영국에서도 로마네스크 양식이 출현 하는데, 노르만족의 전파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노르만 양식'이라고 한다.

'로마네스크 양식'은 프랑스와 독일 전역의 교회와 성당들에서 나타나는데, 건축과 조각에서 발전된 두드러지는 두 가지 특징을 알아보자.

먼저 건축에서 발전된 점은 공간을 확장 시켰던 천정인 궁륭 형식의 재료가 바뀐 것이다. 비잔틴 시대의 목조 재료의 궁륭이 석조 천장으로 바뀌면서 건축 구조의 발전을 가져왔다. 거대하고 웅장한 크기의 목직인 돌 무게를 버텨내기 위해 힘의 분산이 필요했고, 그로인해 두꺼운 벽면과 기둥이 발달하며, 비잔틴 미술에 비해 절제된 장식과 소박한 건축으로 구조가 변화 되었다.

또 다른 변화는 초기 기독교미술 시기, 성화 사용이 허용된 것과 대조적으로 우상 숭배의 문제 때문에 조각은 엄격히 금지되었지만, 로마네스크시기로 접어들면서 교회 출입구와 벽면이 형상 조각으로 장식되는 것이 허용 되었다는 점이다.



◀석조 궁륭형태의 천장



▶형상 조각의 재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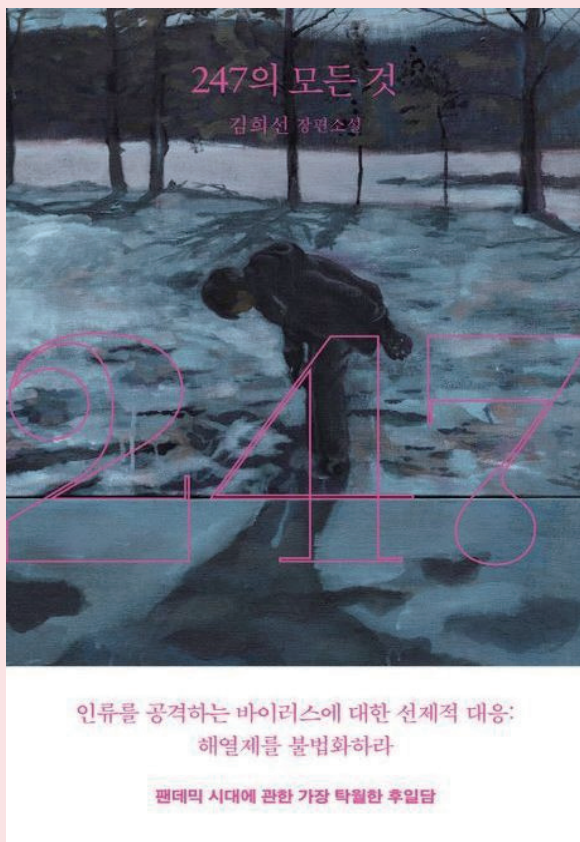
중세 로마네스크 미술은 신을 향한 절대적 신앙심은 억압을 당했던 시간을 보상 받기로 작정 한 듯 건축도, 조각도, 회화도 여전히 신을 향한 갈망으로 강화되었다. 반면 이러한 기독교 미술이 고조될 시기에 종교와 정치, 경제는 각자의 이익을 위해 팽팽한 줄다리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내 다음 달에 소개할 중세의 마지막 '고딕미술'에 이르게 된다.



배수정
서양화 작가
국립군산대학교 서양화 강의

오직 사랑만이 인류를 구원하리니!

김희선. <247의 모든 것>. 은행나무, 2024.



이 세상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정도로 임팩트 있는 대격변의 사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무엇보다 먼저 전쟁을 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전쟁의 역사가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전쟁은 대규모의 인명 살상은 기본이고 난민과 고아 등 직·간접적인 피해자들에게 평생 가도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하기 때문이다. 물적 피해로 인한 복구 비용 또한 천문학적인 규모로 엄청나다. 그런 점에서 전쟁은 그 어떤 명분이나 이유로도 정당화되거나 합리화 되어서는 안 되는, 한마디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이다.

전쟁 다음으로 임팩트 있는 사건으로는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 전지구적 규모의 감염병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창궐 이후 유럽 인구의 약 3분의 1을 사망시킬 정도로 대유행을 했던 중세의

흑사병,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이 사망했던 1918년의 스페인 독감을 비롯하여 천연두, 에볼라, 사스, 신종 플루 등등. 감염병의 역사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각인하고 있는 전지구적 규모의 감염병들은 창궐할 때마다 인류를 불안과 공포의 수렁으로 몰아갔다. 그 중에서도 현재 우리들에게 압도적인 존재감을 뽐내는 감염병은 단연, ‘코로나 19바이러스’이다. 2019년 중국의 우한에서 시작됐다고 하는 코로나 19는 한창 대유행을 하던 때에 비하면 적막강산의 형국이기도 하지만 완전히 종식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아직까지도 끊임없이 숙주에 기생하며 살아남은 변종들이 끈질기게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칼럼 대상 텍스트로 김희선의 '247의 모든 것'을 소환하기로 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본격적인 작업에 앞서 이 작품의 저자인 김희선에 대해 잠깐 소개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듯 싶다. 김희선은 현재 약사이다. 상식적인 세속의 시각으로 보면 본업이 약사이고 소설가는 부업인 것 같다. 하지만 이 작품이 보여주고 있는 작품의 완성도와 밀도를 가지고서 판단하건대, 김희선에겐 본캐와 부캐의 구분은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 그 둘 사이의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워 보일 정도로 이 작품의 서사는 매우 정교하고 치밀하며 문장 또한 오랜 공력이 느껴질 정도로 아주 유려하고 힘이 있기 때문이다. 약사로서의 전문 지식이 이 작품을 쓰는 데 상당한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이번 작품이 올해 제32회 대산문학상 수상 작품으로 선정된 것도 소설가로서의 김희선의 내공과 역량이 전문가들로부터 정당한 인정과 평가를 받은 결과라고 생각한다.

심사 위원들은 심사평을 통해 “바이러스의 상상력과 관련한 생태적 탐문의 중요성을 숙고하게 하고, 이야기꾼이 내 이야기를 하는 존재이기 이전에 다양한 타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헤아리며 고뇌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환기한 점”을 수상작 선정의 이유로 들고 있다. 변종 니파 바이러스의 슈퍼전파자이자 인류 최후의 숙주라는 이유로 이 세상으로부터 영원히 격리·추방되어 최후를 맞이하는 인물을 통해 관계와 윤리의 본질을 묻는 이 작품의 문제의식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지적이 아닐 수 없다. 그러한 심사평에 화답이라도 하듯 김희선은 수상 소감에서 “코로나가 세계를 덮쳤을 때 우리는 다 함께 야만의 시대로 되돌아갔다. 누군가를 가두고, 악마로 몰고, 사생활을 파헤쳤으며, 삶을 파괴했다. 이처럼 목소리가 없거나 낼 수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소설가의 의무라고 믿으며 글을 써 왔다고

하면서 일하는 공간은 작지만,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 각각이 하나의 우주라며 처방받아 가는 이들의 손을 보면서 숨겨진 삶을 궁리하고, 공간 너머에 집중하며 사회 문제도 깊이 탐구한다”(한겨레, 2024. 11.6(수))며 작가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다.

이 작품은 치밀하게 계획된 세계질병통제센터(WCDC)의 변종 니파바이러스 프로젝트를 통한 일종의 사고(思考)실험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박쥐와 돼지를 매개로 전파되었다는 변종 니파바이러스가 창궐한 이후의 디스토피아적 가상 현실에서 여과 없이 드러나는 인간 존재들의 무의식의 민낯을 생생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변종 니파바이러스의 슈퍼전파자이자 인류 최후의 숙주였던 247이 죽었다는 소식은 세계질병통제센터 홈페이지의 공지란에 처음 게재됐다”(7면)는 문장으로 이 작품은 서사의 막을 연다. 이후 이 작품의 서사는 서사의 핵심으로 부상하는 김홍섭이라는 인물의 과거 이력과 개인사에 대해 다소 장황하다 싶을 정도로 구체적인 정보 제공과 설명으로 이어진다. 그 정보와 설명에 의하면, 김홍섭은 초등학교 4학년 때 박쥐와 관련된 충격적인 경험을 한 바 있으며 고등학교 졸업 이후 열대 지방인 P국의 약대에서 미생물학과 약학을 전공한 후 귀국해서 W시 외곽에 위치한 축산연구소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세계질병통제센터의 프로젝트에 의해 변종 니파바이러스의 슈퍼전파자이자 최종 숙주의 배역을 할당받은 이후 공분과 혐오의 대상으로 타자화·악마화되어 247이라는 기호로 새롭게 정체화되는 김홍섭이 우주선에 태워져 이 세상 바깥으로 영원히 추방당하는 상황으로 끝나는 게 이 작품의 서사 열개이다.

김홍섭이 변종 니파바이러스의 슈퍼전파자이자 인류 최후의 숙주로 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밑거름이 되는 것은 ‘파라세타몰’이라는 불법 제조 해열제이다. 이 알약으로 인한 파국은 “본래의 니파바이러스보다도 수십, 수천 배 더 강력하고 광포하게 변해버린 끔찍한 변종”(103면)인 변종 니파바이러스가 창궐한 이후 대감염의 확산을 우려한 세계질병통제센터에서 해열제를 “특수 중점 관리 의약품으로 지정한 후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만 구입”(104면)할 수 있는 강력한 통제 정책을 시행하면서 시작된다. 이 사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인물은 나 집이라는 이름의 불법 채류 이주 노동자이다. W시 외곽의 돼지 농장에서 일하는 그는 발열 증상에도 불구하고 불법 채류자라는 자신의 신분 때문에 해열제 처방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 그러한 상황에서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자신의 부인을 찾아갈 일이 발생하는데 부인 또한 마찬가지로 처지이다. 부인을 만나기 위한 교육지책으로 약국을 찾아가던 그는 읍소와 통사정 끝에 불법 제조 해열제인 파라세타몰을 손에 넣은 후 부인을 만난다.

김홍섭이 그 문제의 알약에 연루되는 계기는 지독한 불면증과 극심한 두통이다. 불면증은 하루에 한숨도 제대로 잠들지 못할 정도이며 두통 또한 “누군가 머리를 도끼로 내려쳐서 반으로 쪼개는 듯한 기분”(139면)이 들 정도로 심하다. 그 정도로 지독한 불면증과 두통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창궐 당시 살처분의 방

식으로 들판에 대량으로 생매장된 참혹한 현장, 구체적으로 “얇은 흙과 비닐 아래 무한하게 많은 돼지들이 비명을 지르던 얼굴 그대로 파묻혀 있던 돼지들의 생지옥”(129면)이라는 표현이 조금도 과장이 아닌 그 현장을 다녀온 이후 시작된 악몽과 트라우마 때문이다.

새로운 돼지 바이러스 출현을 감시하기 위해 방문한 돼지 농장에서 김홍섭은 나집으로부터 파라세타몰 이야기를 듣게 된 이후 문제의 그 약사를 찾아가 통사정 끝에 약을 처방받는다. 그 이후 김홍섭은 급하게 출근을 서두르던 신고자와 충돌하게 되고 충돌 현장에서 알약을 떨어뜨리게 된다. 그 알약을 주운 신고자는 약사의 친구이자 자신의 주치의인 의사에게 그 알약을 신고하게 되면서 김홍섭은 변종 니파바이러스의 슈퍼전파자이자 인류의 최종 숙주로 판정을 받게 된 후 247이라는 기호로 사물화된다. 이후 247은 우주선에 태워져 이 세상 바깥으로 영원히 추방당하게 되는 운명을 맞이한다.

이러한 서사 설정을 통해 작가 김희선이 전달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의 핵심은 무엇인가? 247의 추방 이후 우리들이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거주해야 하는 이 세상은 모든 바이러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청정 구역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대답은 당연히, “그날, 247이 죽던 날, 놈이 타고 있던 인공위성을 쳐다본 뒤로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다는 거. 난 분명 감명됐을거야.”(11면)라는 목격자의 강박적인 불안이 극명하게 웅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 세상의 마지막 질병은 바이러스라고 한다. 따라서 인류의 역사와 운명을 같이해 온 바이러스 또한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한 완전한 종말은 불가능할 것이다. 더욱이 니파바이러스처럼 인수 공통감염이 유행하는 세상에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이 있다면 ‘인간 중심주의’와 ‘종 차별주의’로부터 벗어나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을 지구 생명 공동체에 같이 거주하는 동료 주민으로 서로 보살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더불어 작품 서두와 말미에 기하학학적인 대칭을 형성하면서, 247이 우주선에서 소멸 직전에 지구촌의 인간들에게 전달했다고 하는 “서로 사랑하고 아끼세요. 오직 사랑만이 인류를 구원할 겁니다”(14면),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하리라.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사랑이 결코 인간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모든 존재, 하다못해 미생물, 바이러스 우주 먼지에까지”(210면)라는 메시지야말로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의 핵심을 압축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글을 매조지고자 한다.



공종구
국립군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선진국형 창업으로 가는 상저옥배(象玉玉杯)의 교훈

외국인들이 한국의 식당에 들어서면 백이면 백 놀라는 점이 있다. 음식 주문 후 그들이 시키지도 않은 반찬들이 한 상 푸짐하게 깔린다는 점과 그 모든 반찬이 무료라는 점이다. 이에 많은 외국인들은 한국의 식당을 경험하곤 고국으로 돌아가 “그 곳엔 신기한 문화가 있다”고 전파하기도 한다.

그들이 체험한 이른바 ‘한국인의 정’은 한국인들의 자랑거리다. 하지만 바로 ‘한국인의 정’이 선진국형 식당으로 가는 길목을 차단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푸짐하게 나오는 수많은 반찬들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은 ‘한국인의 정’이라는 감정적인 우쭐함이 어찌할 수 없는 지경으로까지 커져가고 있다.

우리나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하루 평균 약 1만5000톤이며 연간 500만 톤이 넘는다.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20조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일각에서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수치까지 합하면 40조원에 가까운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다고 추정하기도 한다. 상황이 이렇진데 아직도 식당에서는 수많은 반찬들이 서비스로 나가고 있고, 손님들은 당연한 듯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는 이런 대한민국 식당의 관행을 과감히 끊어내야 한다. “김치 더 주세요!”라는 말이 식당에서 사라져야 한다.

한국은 식당에서 “이것 더 주세요, 저것 더 주세요”가 가능한 세계 속 유일한 나라다. 이렇다 보니 안 먹는 음식은 안 먹고, 먹게 되는 음식은 계속 더 먹게 된다. 음식물 쓰레기가 늘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가짓수를 채우려고 손님들이 찾지도 않는 반찬을 내어 주다 보니 어떤 반찬은 만든 그대로 쓰레기통으로 직행 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 더 주세요, 저것 더 주세요”가 가능한 한국식당에선 식당 주인과 고객 간 불신이 생기는 경우도 허다하다. 주인은 고객이 반찬을 더 달라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더 주다 보면 원가생각이 나기 마련이다. 그러다 보면 질 좋은 제품을 쓰는데 주저하게 된다. 값을 매기지 않고 반찬을 서비스하는 것이 계속되면 국가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식당은 원가격정에 음식의 경쟁력과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비자(韓非子) 유로편(喻老篇)에 상저옥배(象玉玉杯)라는 말

이 나온다. 원래 의미는 상아 젓가락과 옥 술잔이라는 뜻으로, 좋은 젓가락과 술잔을 말한다.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 결국 나라를 망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한 말이다. 은나라의 마지막 왕인 주(紂)는 술의 연못과 고기의 숲으로 유명하다. 그는 나무에는 고기를 걸어두고 그 사이를 알몸으로 남녀가 서로 쫓아다니게 하여 긴 밤을 술로 지냈다고 한다.

주가 어느날 상아로 젓가락을 만들게 하자 이것을 보고 기자(箕子)는 악의 근원이라며 간했다 한다. 즉 상아 젓가락으로 식사를 하게 되면 그때까지 사용하고 있던 토기가 성에 차지 않아 옥으로 만든 식기를 쓰려고 하고, 다음은 거기에 진귀한 음식을 담으려 하고, 그 다음은 먹을 때의 복장, 그 다음은 호화스런 궁전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상아 젓가락이 단지 훌륭한 식사 도구에 그치지 않고 이것이 사치의 단초가 되어 결국 국가의 재정을 고갈시켜 파멸을 초래하고 만다는 것이다. 하찮은 낭비가 망국적 사치로 치닫한다는 엄중한 경고이다.

한비자의 교훈처럼 먹지도 않을 음식을 내어주는 것 역시 작은 사치에 해당한다. 가장 합리적인 식당 음식 구매 방법은 메인 메뉴와 김치만 세트가로 판매하고, 그 외에 반찬들은 소액의 추가요금을 받는 형식으로 가야 한다. 손님이 원하는 음식을 골라서 먹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시키면 음식의 질도 좋아진다. 반찬 하나하나를 돈 주고 파는 것이니 퀄리티에 집중하게 되고 맛있게 만들 수 있게 된다. 자기가 안 먹는 반찬은 늘어놓고 먹지 않게 되니 반찬 재활용 걱정도 없어진다. 선진국형 식당으로 가기 위해선 이처럼 작은 부분에서부터 바뀌어야 한다.



김철호
식품의약학 이학박사, 대한민국명인
수산신지식인, 내고향씨푸드 운영

식판 위에 레몬밤 심기



위 사진은 지인이 근무하던 초등학교 식목일 식단이에요. 요거트 위에 쿠키 가루 뿌리고 학교에서 키운 레몬밤 잎을 영양사 선생님이 손수 따서 꽃았어요. 다시 그 위에 돌 모양 초콜릿으로 장식했답니다. 그러니까 저건 화분에 심은 식물 흉내를 낸 요거트라는 거죠. 정성이 가득한 우주 최고 식단 맞지요?

레몬밤(Lemon balm)은 잎에서 향긋한 레몬 향이 나는 허브 식물이에요. 모히또 위에 살짝 얹어 나오기도 하지요. 생강나무 앞에서 생강 향이 나듯 잎에서 레몬 향이 난다니 이럴 때 드는 생각은 갖고 싶답니다.

봄에 배수가 잘 되는 땅에 씨앗을 뿌리고 살짝 흙으로 덮어주면 싹이 나고 또 잘 자라요. 마당 한 칸에 레몬밤을 심고, 꽃을 보았고, 잎에서 나는 레몬 향을 노을 질 때까지 맡아봤고, 청량음료 위에도 올려 장식도 해보고, 말려서 차로도 마셔보았답니다.

다음 해에는 씨 뿌리지 않아도 다시 그 자리에 돌아났지요. 생각해 봤어요. 레몬밤 잎은 왜 하필 레몬 향을 지니게 되었을까 하고요. 허브식물이 그러듯 레몬밤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위로가 되었을까요. 올 봄에는 화분이나 텃밭에 레몬밤을 키워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식탁에도 레몬밤의 향긋함과 건강한 이야기가 무럭무럭 자라길 바라봅니다.



신재순 시인 /
시인/ 한국아동문학회, 전북작가회의 회원
문 밖에서 만나는 나무와 풀, 곤충을 사진에 담고 이야기한다.

조촌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올 12월 준공

이후 신포동, 옥산면 청사신축 순위 도래
청사신축 우선순위 선정 기준에 따른 청사 건립



군산시는 작년 6월에 착공했던 조촌동 행정복지센터(조촌동 909-4번지 일원)가 올해 12월 준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시에 따르면 신청사 규모는 지하 1층 ~ 지상 4층, 연 면적 2,906.8㎡이며, 총사업비는 91억 7,400만 원이다.

기존 조촌동 청사는 1983년도 10월 문을 연 후 39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으로, 지난 2022년에는 기존 청사에서 임시청사(구 농어촌공사 군산지사)로 이전하며 업무를 봐왔다.

이로 인해 주민편의공간(주차장, 주민자치프로그램 등) 부족 등으로 주민들이 불

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특히, 주민자치 프로그램실이 부족해 인근 아파트 상가 지하를 활용 운영하기도 했으나 습기와 곰팡이 등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올 연말에 신축되는 조촌동 행정복지센터는 디오션시티 개발 및 대규모 아파트 조성 등 조촌동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축 청사 1층은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민원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민원실 면적을 확대하여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청사 2~4층에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6개를 확보하여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부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햇살중정 및 하늘정원 등 시민쉼터를 조성하여 청사를 이용하는 시민과 직원을 위한 공간도 마련한다.

군산시의회, 제274회 임시회 4월 7일 개최

현안업무보고 및 주요업무보고 청취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 조례안 등 발의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가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274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시의회는 지난 2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나종대)를 열고 회기 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키로 했으며 이중 3건의 조례안이 의원 발의로 상정됐다.

현재까지 예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군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 조례안(설경민 의원),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경봉 의원), ▲군산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동수 의원) 등 이다.

또한, 군산시 공모사업 추진 현황보고 등

현안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나종대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임시회는 행정기구 개편을 비롯해 지역 경제 활성화, 문화유산 보존, 친환경 농업 육성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조례안들이 다뤄질 예정으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의미 있는 회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시정 전반의 추진 방향을 살필 수 있는 업무보고와 현장 방문도 예정되어 있는 만큼, 내실 있는 회기 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274회 임시회에 심의·의결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군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 조례안

▲ 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 운영 및 수수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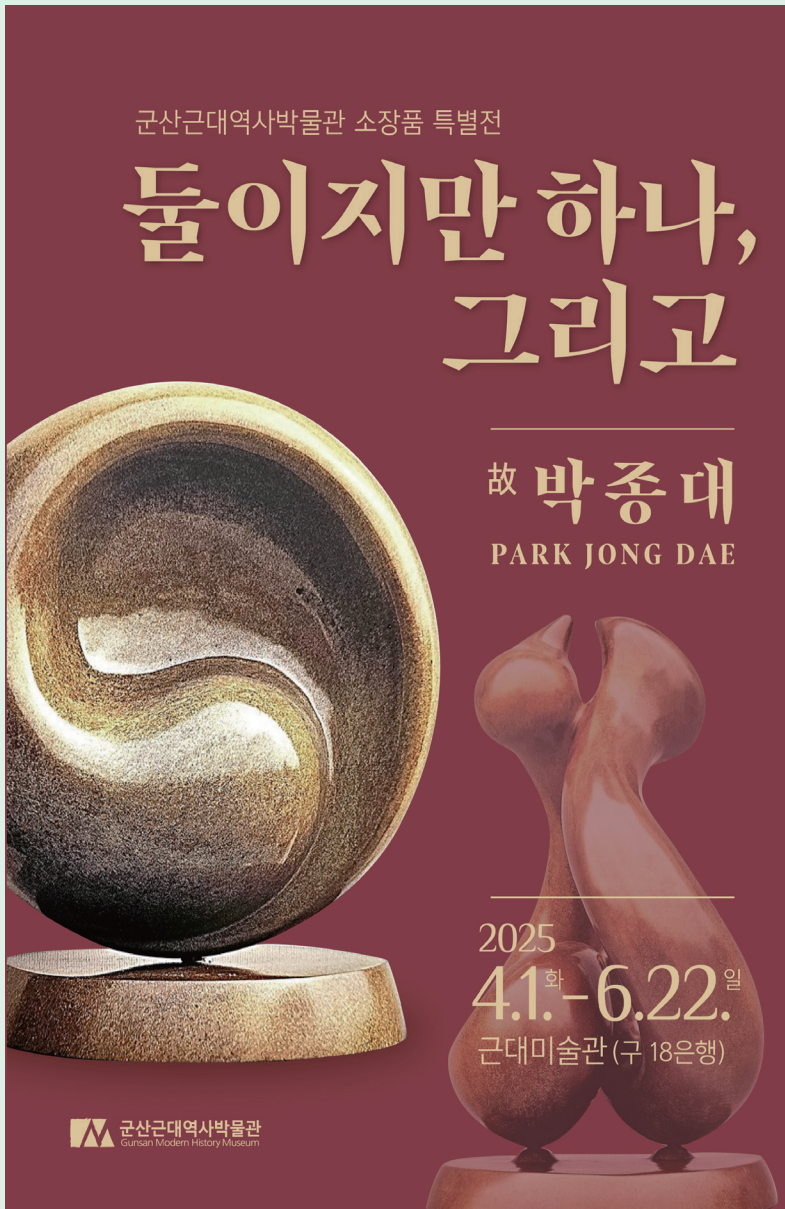
▲ 군산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건설기계용 수소기반 파워트레인 상용화를 위한 신뢰성평가 기반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 군산시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관리 위탁 동의안

근대미술관, 故 박종대 조각가 특별전

한울, 조화, 무극, 사랑 등 4개의 소주제로 구성
6월 22일까지 근대미술관에서 개최



이 대중에게 소개된다.

전시의 구성은 '태극'의 상형을 중심으로 '한울', '조화', '무극', '사랑' 등 4개의 소주제로 이루어졌으며 작품을 통해 각 소주제의 의미를 긴밀히 살펴볼 수 있다.

故 박종대 조각가는 상반된 두 개의 대립물 간의 조화와 화합을 의미하는 '태극'과 '한울', 모든 대립이 조화롭게 균형된 상태인 '무극'의 개념을 바탕으로 우주 만물에 대한 자신만의 조형 언어를 구축해 관심을 끌었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를 졸업한 후 왕성한 예술 활동을 펼쳤으며 1979년에 국립 군산대학교 교수로 부임하여 후학을 양성하는 등 예술가이자 교육자로서 지역 미술 발전에 기여했다.

박물관 관계자는 "관람객들이 태극이라는 상형이 열어주는 의미와 연상의 세계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군산근대미술관은 매년 군산 출신의 원로작가 초대전을 열어 왔으며, 다른 기관과의 연계 기획전과 자체 기획전 등을 통해 연 4회 정도 전시를 진행하는 중이다.

전시를 통해 독특하면서도 군산의 정취를 가득 담은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군산근대미술관(구18은행)은 4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 故 박종대 조각가 특별전 '돌이지만 하나, 그리고'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故 박종대 조각가의 조형성과 작품성을 잘 보여주는 조각 작품 23점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군산시 해망로 240
www.museum.gunsan.go.kr/

제80회 식목일 기념행사 진행

지난해 12월 준공된 철길숲 1·2구간에서 개최
나무 심기에 대한 중요성 홍보, 녹지 조성



군산시는 지난 3월 28일 도시바람길숲(철길숲) 일원에서 제80회 식목일 기념 나무 심기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철길숲 1·2구간 일원은 작년 12월에 준공됐으며, 구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사정삼거리~옛 군산 화물역까지 총길이 2.6km의 철도 유희부지 구간이다.

시는 나무 심기에 대한 중요성 홍보와 녹색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 시민과 밀접한 도심 속의 철길숲 조성지를 이번 식재 장소로 선정했다.

행사는 강임준 시장을 비롯해 공무원과 시의원, 산림조합장 김성현, 임업후계자 및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여해 소나무, 무

궁화, 야생화(송엽국, 홍설, 맥문동, 옥잠화) 등 6,500여 본을 심었다.

특히, 그동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500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으로 헌수된 수목을 기부자가 직접 심도록 해 더욱 의미 있는 행사가 되었다.

나무를 심은 기부자들은 "내가 기증한 나무를 내가 직접 심게 되니 감회가 남다르다"며 "이 나무들이 지속 가능한 삶의 가치를 나눔의 가치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하는 군산 미래의 숲 나무심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녹색친환경도시 군산을

위한 사업을 앞장서서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가 이번 식목일 행사에 사용된 나무를 헌수한 기부자들은 ▲(주)대운산업개발(6,800만 원 상당의 동백나무 외 1,512본) ▲군산산림조합 (6,200만 원 상당의 블루앤젤 외 685본) ▲문용주 전 교육감(500만 원 상당의 소나무) ▲서수면 김기남(1,800만 원 상당의 무궁화) 등이다.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크루즈산업 활성화 모색

새만금청-새만금공사-입주 기업
그린 트러스트 업무협약 체결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지난 3월 24일 여수항 크루즈 터미널(선착장)을 찾아 내외부 시설 및 운영 체계를 살펴보고 새만금 크루즈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여수시는 2026년 여수 세계 섬 박람회를 앞두고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올해 역점 과제로 추진 중이다. 최근에는 여수항 모항 첫 국제 크루즈선인 '이스턴 비너스'를 성공적으로 운항했다.

김민수 개발사업국장을 포함한 새만금청 관계자들은 이날 강정구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과의 소통을 통해 새만금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한 목표와 비전을 공유했다.

또한, 관광 인프라 구축과 제도적 지원, 유관기관 협조 등이 크루즈산업의 장기적 성장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 공감했다.

김민수 새만금개발청 개발사업국장은 “새만금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새만금 크루즈산업이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밑그림을 잘 그려가겠다”면서 “이를 통해 전복을 비롯한 우리나라 관광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3월 25일 새만금 유관기관, 산단 입주기업과 함께 새만금 그린 트러스트(Green Trust)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린 트러스트는 환경보호, 탄소저감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 참여 기관 및 기업은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국립새만금관측박물관, 성일하이텍, 이피캠텍, 품림파마텍 등이다.

업무협약은 기후 위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 가능한 새만금 개발을 목표로 민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려는 의지에서 마련했다.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www.saemangeum.go.kr/

지역산업-플라즈마기술 연계 기술교류회 개최

군산강소특구-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플라즈마기술연구소
기업 1:1 맞춤형 컨설팅 함께 진행



플라즈마 기술과 지역 특화사업을 연계하기 위해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플라즈마기술연구소와 군산 강소특구는 지난 달 25일 공동으로 플라즈마기술교류회 및 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플라즈마기술 지역 융합R&D 및 기업지원사업 설명 및 지역 기업과 연계 가능한 플라즈마 응용기술을 함께 소개하고, 전문 연구원과 1:1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했다.

또한, 전북 군산 강소특구육성사업단도 함께 행사에 참여해 특화기업 기술 Jump-up 성장지원, 특화분야 Tech-up 시제품제작 지원사업 등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플라즈마기술연구소와 협력하기 위해 1:1 기업 밀착상담을 진행했다.

기업 1:1 상담은 플라즈마 응용기술 및 강소특구사업 등에 대한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지역기업에 대한 심도있는 맞춤형 컨설팅이 진행됐다.

플라즈마기술연구소는 소재·장비, 바이오, 환경·에너지 등 3개 분야의 유망기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며, 플라즈마 장치 시연을 통해 기업들에게 실제 플라즈마 상태를 보여주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강소특구 특화분야인 탄소 융복합 소재·부품, 이차전지, 자동차기계, 수소산업 등에 대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강소특구 내 기업들의 기술수요 대응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술교류회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는 지역기업의 플라즈마기술과

연계를 통해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플라즈마기술 지역 융합R&D 및 기업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의 지원을 받아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전북 군산강소특구 육성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의 지원을 받아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군산대학교 강소특구육성사업단
군산시 산단남북로 177-1 303호
www.kunsan.ac.kr/

시립교향악단, 제77회 특별기획연주회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다양한 음악들
오케스트라 연주로 선보인다

군산시립교향악단
제77회 특별기획연주회

교과서 음악회

2025. 5. 3. (토) 17:00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

상임지휘자 | 이명근

피아노 | 방인주

- 예 매 안 내 | 본 공연은 무료공연이며 5세이상부터 입장가능합니다.
- 인터넷 예 매 | 티켓링크 www.ticketlink.co.kr 4월 1일(화) 오전 10시부터 예매가능
- 현 장 예 매 | 공연당일 공연시작 1시간 전(오후 4시)부터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 1층 현장매표소에서 선착순으로 배부
- 티켓수령안내 | 인터넷예매 공연당일 군산 예술의전당 로비 현장수령

주최 | 군산시 주관 | 군산시립교향악단 공연문의 | 063) 454-5556 www.gunsan.go.kr/gsart

린다.

이명근 상임지휘자의 곡 해설과 함께 각 무대를 학교 수업 시간처럼 재미있게 구성해 관람객들의 호기심을 자아내고 있다.

1교시 무대는 서곡 시간으로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과 주페의 '경기병 서곡'이 연주된다.

2교시는 피아니스트 방인주가 함께 하는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 중 3악장이 연주된다.

방인주는 줄리어드 예비학교와 메네스 음대를 졸업했고,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 대학원과 데트몰트 국립음대 최고 연주 자과정을 마친 실력과 연주자로, 현재는 유럽과 미국에서 활발한 공연 활동을 펼치는 한편, 경희대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3교시는 교과서를 통해 익숙한 모차르트 '장난감 교향곡 1악장'과 '아프리카 심포니'가 연주된다. 경쾌한 음악 속에 담긴 어린이다운 떠들썩함이 가득한 음악이 관객들을 한껏 들뜨게 만든다.

마지막 4교시는 오케스트라와 관객들이 함께 호흡하는 합주 수업으로 비제 '카르멘'과 브람스의 '헝가리안 무곡'이 연주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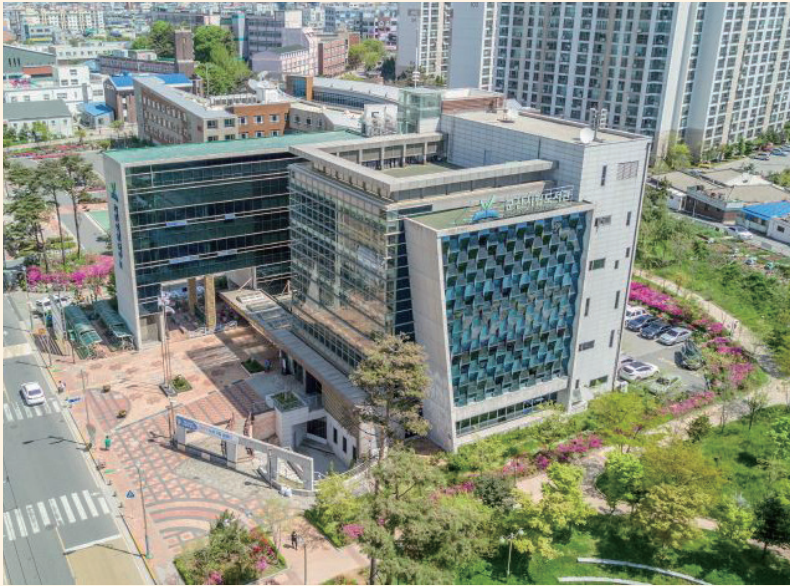
군산시립교향악단이 오는 5월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다양한 음악들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어보는 '교과서 음악회'를 개최한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특별 기획한 이번 공연은 5월 3일 토요일 오후 5시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화려한 막을 올

군산예술의전당
군산시 백토로 203
www.gunsan.go.kr/arts/

군산시립도서관, 4월 도서관주간 문화행사 운영

4월 12일부터 18일까지 풍성한 프로그램 마련
‘책의 중요성’ 알리며 도서관 이용 활성화 도모



군산시립도서관이 12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는 ‘4월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 주간’을 맞아 다채롭고 풍성한 문화행사를 운영한다.

‘도서관 주간’은 도서관과 책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역주민들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와 독서 생활 진작을 위한 대규모 독서 문화 캠페인이다.

군산시립도서관 본관에서는 깜깜한 공간 속에서 펼쳐지는 마법 같은 세상 <블랙라이트 인형극 ‘종이아빠’>, ‘그것이 알고 싶다’, ‘이혼숙려캠프’ 등의 TV 프로그램으로 익숙한 이광민 정신의학과 의사의 초청 강연 <할 일은 많지만 아직도 누워 있는 당신에게>, 인기 동화작가인 강호미 작가를 만나는 <똥뚱이 할매의 모든 것!>등을 선보인다.

이외에도 아름다운 동화책을 읽고 우드버닝 도마와 반짝반짝 스탠드를 만들 수 있는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군산시립도서관 자료실에서는 <북큐레이션 연계 커피향이 나는 도서관>, 도서관 미션 수행 완료 후 꽃 레고 키트와 교환하는 <도서관 미션 책파서블>, <책 읽는 고양이 서공차 원화 전시> 등의 연계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금강도서관에서는 유진 작가가 직접 들려주는 <그림책 ‘유기견 영남이’> 1인극 공연과 대한민국 최초 강력계 여형사 박미옥 작가와의 만남이 눈길을 끈다.

또한, 직접 손바느질로 만들어보는 그림책 캐릭터 인형, 어린이 그림책 독서 체험 등을 경험할 수 있다.

늘푸른도서관에서는 <왜 띄어 써야 돼?>, <왜 맞춤법에 맞게 써야 돼?> 그림책으로 문법을 재미있게 알려주는 박규빈 동화작가의 강연과 종이회전 인형극, 나만의 책도장 만들기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설림도서관 자료실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양말목 공예 ▲동화요리 ▲팝아트 체험 ▲책 제목 피라미드&책 표지 컬러링 등의 프로그램이 선보인다.

산돌도서관은 <백 개의 꽃씨와 쥐> 이조호 그림책 작가와의 만남과 ▲성인을 위한 감성 오일 향수 만들기 ▲모두가 참여하는 그림책 이야기기 ▲독후 연계 활동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군산시는 군산 시민이 더욱 풍성하고 활발한 독서 생활을 즐길 수 있게 12일부터 18일까지 시립 및 분관 5개소, 작은도서관 13개소에서 <도서 대출 두 배로 주간(1인당 최대 10권의 도서 대출)>, <연체자 구제 주간(해당 기간에 연체 도서 전부 반납 시 대출 정지기간 해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깜짝 행사로는 온라인 전자책을 이용한 사람 중 30명을 무작위로 추첨하여 커피 기프티콘을 선물하는 행사가 열린다.



전북 최초 이명치료기 'ALTMS' 도입



전 경 호 JKH ENT Clinic
이비인후과

전북 군산시 공단대로 252 2-3층 T: 063-471-5575

군산과 새만금 지역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담아내려는 매거진 군산·새만금을 위하여 보내주신
격려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매거진 군산·새만금에서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독자 관리를 위하여
CMS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작성해주신 이 신청서는 군산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신청서 작성 후

1. 권유하신 분께 직접 전달
2. 팩스로 송부 (063) 442-3883
3. 사진 찍어서 이메일 newgunsanews@naver.com

이런 방법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출금이체서

수납기관 및 요금종류

·수납기관명: 문화공감 사람과 길(매거진 군산) ·대표자: 채명룡 ·사업자등록번호: 241-43-01344
·사업장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절골3길 16-2(신흥동) ·수납 요금종류: 구독료 납부

- ☐ 매거진 군산·새만금 구독 (7,000원/월)
☐ 새군산신문 + 매거진군산·새만금 구독
(10,000원/월)

■ 구독받으실 주소

·출금계좌 예금주명_

·금융기관명_

·출금 계좌번호_

·예금주 생년월일_

계좌 예금주가 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예금주 연락처(휴대전화)_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 경우

·신청인명_

·예금주와의 관계_

·신청인 연락처(휴대전화)_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CMS 출금이체를 통한 요금수납
- 수집항목: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CMS 출금이체 종료일(해지일) 5년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동의안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출금이체 신규등록 및 해지 사실 통지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휴대폰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동의안함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 통지 안내

은행 등 금융회사 및 금융결제원은 CMS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의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세지, 유선 등으로 고객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상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및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에 동의하며 CMS 출금이체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 경우) 예금주:

(인 또는 서명)



족발야시장 군산미장점

맛있는 재료로 만든 졕발의 명가

대표 전 재 용

군산시 미장1길 38 102, 103호

TEL: 063-453-49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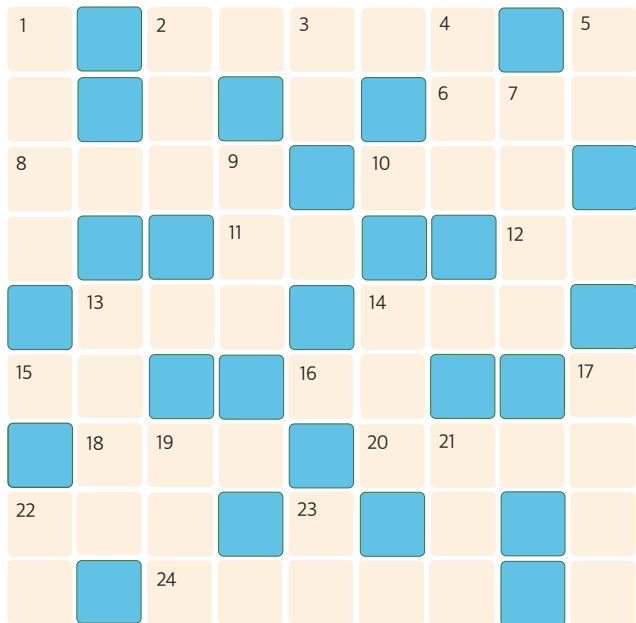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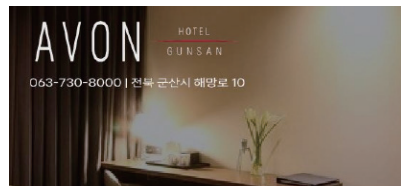
국내 1위를 넘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특수강 전문 기업-세아베스틸
이제, 세계 최고의 특수강 메이커로서 다시 태어납니다.

Born to be Special

즐거운 크로스워드 퍼즐

164



<163호 해답>

정답 (이름, 연락처, 주소)을 매거진군산 새만금에 보내주세요.
무작위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에이본호텔 썬데이 브런치 2인)을 드립니다.
 Fax. (063)442-3883 E-mail. dhik0324@hanmail.net
경품 추첨을 위해 팩스, 메일 보내주실 때 반드시 연락처 기재 바랍니다.
 출제: 오성렬(편집위원) 협찬: 에이본호텔 군산

가로 열쇠

- 02 군산시 옥도면이 관할하는 섬의 무리를 통칭하는 말. 선유도 등 12개의 유인도와 40여 개의 무인도로 이루어졌다.
- 06 연초에 근무를 시작할 때 행하는 의식.
- 08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물건을 파는 사람. 0보00.
- 10 주로 여자가 장식으로 손가락에 끼는 두 짝의 고리.
- 11 갓 결혼함. 00부부.
- 12 꿈속의 생각. 실현성이 없는 헛된 생각.
- 13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따위에 관한 사무를 업으로 하는 전문직.
- 14 난 지 1년이 안 된 새끼를 잡아 길들여서 사냥에 쓰는 때. 우리 공군의 상징이기도 하다.
- 15 몸에 살이 많아 덩스러운 모양.
- 16 요나 이불 따위의 겉에 씌우는 홑겹으로 된 겹데기.
- 18 사물이나 권리 따위를 서로 다투어 빼앗는 싸움.
- 20 국회, 정당대회, 학회 따위에서 기본 취지나 정책 따위에 대하여 설명하는 연설.
- 22 오이를 독이나 항아리에 담고 끓여서 식힌 소금물을 부어 익힌 반찬.
- 24 산소 호흡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운동. 등산, 달리기, 줄넘기, 에어로빅 등.

세로 열쇠

- 01 구성원마다 제각기 살아나갈 방도를 포함. 각 0도0.
- 02 매운맛을 내는 순창군의 특산물 장류.
- 03 소경이점을 칠때쓰는 산기지를 넣은 통. 00을 깨다.
- 04 흔히 점심밥을 담아가지고 다는데 쓰는 작은 그릇.
- 05 끼니와 끼니 사이에 음식을 먹음. 또는 그 음식.
- 07 아는 것이 없고 사리에 어두움.
- 09 구한말에 일본에 보내던 외교사절.
- 13 이랬다저랬다 잘 변하는 사람을 낮잡아하는 말.
- 14 약한 청력을 보강하는 기구.
- 17 1918년에 개설된 군산의 대표적인 전통시장. 일명 구시장으로 불리기도 한다.
- 19 우유에서 지방을 빼고 남은 것. 여러 식품의 가공 원료로 쓰인다.
- 21 군산시청, 법원 검찰청 등이 소재한 행정동명.
- 22 타자기나 컴퓨터 따위를 칠때에 잘못 칠. 또는 그런 글자.
- 23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소원함.

"매거진군산 새만금과 함께할 필진을 모집합니다"
 연락처: 063-445-4700
 이메일: dhik0324@hanmail.net